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몽골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NUM)

몽골과학아카데미 국제학연구소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IS),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제16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

2025

The 16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

다극화하는 세계와 코리아학

A Multipolar World and Korean Studies

2025년 8월 18일(월) – 20일(수)

Monday, 18th August – Wednesday, 20th August 2025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Ulaanbaatar, Mongolia

isks16th@isks.org
<https://isks.org/icks>



제16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

The 16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일정 Schedule	02
프로그램 Program	03
분과회 Sessions	05
기조강연 Keynote Address	13
- 안병우 / Ahn, Byungwoo	14
- 박노자 / Vladimir Tikhonov	38
- Sainbilegt. D	43
- Oyuntsetseg. D	57

회장 위치 지도 Venue Map



지도 Map

Schedule

8월 18일 (월 / Mon)

13:00-19:00 참가 등록 접수 / Registration
중앙도서관 2층 205 / Room 205, 2nd Floor, Library

8월 19일 (화 / Tue)

09:00 **개회식 / Opening Ceremony**
본관 2층 216 / Main Building 2F, Academic Round Hall (Room 216)

09:30 **기조강연 / Keynote Speeches**

「남북 역사학 교류와 다극화 추세에서의 전망」
안병우 / Ahn, Byungwoo(한신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국제 사회 다극화 시대의 글로벌 코리아학」
박노자 / Vladimir Tikhonov (오슬로대학교 교수/Professor, Oslo University)

「몽골 코리아학의 동향 분석」
Sainbilegt. D (몽골국립대학교 교수/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몽골과 코리아반도 국가 간의 관계」
Oyuntsetseg. D (몽골국립대학교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11:50 **중식 / Lunch**
노보텔 올란바토르 2층 / Novotel Ulaanbaatar, 2F "FOOD EXCHANGE"

13:50 **분과회 / Sessions**
중앙도서관 2 · 3 · 5층 / Library 2F/3F/5F

19:00 **환영 만찬 / Welcome Banquet**
바양골 호텔 / Bayangol Hotel

8월 20일 (수 / Wed)

09:50 **분과회 / Sessions**
중앙도서관 2 · 3 · 5층 / Library 2F/3F/5F

11:50- **중식 / Lunch**
노보텔 올란바토르 2층 / Novotel Ulaanbaatar, 2F "FOOD EXCHANGE"

13:50 **분과회 / Sessions**

17:40 **국제고려학회 총회 / ISKS General Assembly**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시상 / Graduate Student Paper Awards
폐회식 / Closing Ceremony
본관 2층 216 / Academic Round Hall (Room 216), 2nd Floor, Main Building

19:00 **폐회 만찬 / Farewell Banquet**
바양골 호텔 / Bayangol Hotel

[illegible]

19일

역/력사 / History 1

사회 Kim Sun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13:50	Modern Statehood and Constitutionalist Ideas in Pre-Colonial Korea, the 1880s to 1910	Vladimir Tikhonov /Pak Noja	Oslo University
14:20	‘제국 일본’의 제신, 메이지천황의 탄생	박삼현	건국대학교
14:50	Origins of Democratic Republicanism before and after the Empire of Korea	Tae-Ung Baik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5:20	Natural Disasters and Government Responses in an Ancient State: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Welfare State Formation in Historical Korea	조영준	서울대학교

역/력사 / History 2

사회 Tae-Ung Baik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6:00	Escaping Hunger, Defying Borders: Famine, Migration, and Agency in the China-North Korea Borderland (1959-1962)	Anqi Gao	University of Leeds
16:30	외교문서와 사신을 통해 본 몽골제국의 고려 정책	몽흐빌궁	서울대학교
17:00	한국-아프리카 협력과 반동정신	박선영	세종대학교
17: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교육 정책담론 - 시대 구분 중심으로	홍영자	북한대학원대학교

20일

력/역사 / History 3

사회 박삼현 (건국대학교)

13:50	The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Value and Significance of Yeosu Jueosa Temple Site	Kim Sun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14:20	한류의 전개와 전통문화	최광식	고려대학교
14:50	조선 여성의 해방과 여성의 국제주의: 허정숙과 WIDF	허윤	이화여자대학교

력/역사 / History 4

사회 허윤 (이화여자대학교)

15:30	고인돌의 덮개돌 무게 분석을 통한 청동기 마을 분석 -3D 사진측량 분석을 통한 고고학 접근-	박영재	세종대학교
16:00	신라·고려 시대 축천문자 사용례를 통해 본 문자문화의 전파	우에다 기헤이나리 치카	Waseda University
16:30	한국고대사관련 문학적 서사의 역사화와 기억의 전승	정호섭	고려대학교
17:00	동아시아 건축 말각천장(抹角天障)에 관한 건축사적 해석- 기원과 변형, 고구려 고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홍대한	국립농업박물관

19일

Critical Issues in Korean History from Trans-Temporal Perspectives

사회 Cheehyung Harrison Kim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13:50	Industrialization, Activism, and Environmental Memory: A Literary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1960-1997)	Yejun Kweon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The Cholera Epidemic of 1946 and the Two Koreas' Responses	Jaehyung Kim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전근대 동아시아의 인신매매 양상: 중국, 일본과의 비교	류은아	건국대학교
	Chosŏn's Response to Western Intrusions: 'Strategic Demand' on Assistance of the Qing	Yeseung Yun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16:20	베트남전쟁의 공산권 영향과 개입에 대한 한국의 반공주의적 시각(1964-1973)	이원근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교육 / Education 1

사회 오홍민 (오사카경제법과대학)

16:30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글쓰기 수업에서의 맞춤형 GPT(ChatGPT 기반)적용 가능성	Sodnomdorj Enkhchimeg, Dashdorj Sainbilegt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17:00	한글학습 어플을 이용한 문자학습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어 초급과정의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박은주	Nara University
17:30	전후(戰後) 한일국교정상화 이전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基礎朝鮮語』에 대한 내용 분석	박종후	동지사대학
18:00	일본에서 출판된 코리아어 학습서의 역사적 변화와 향후 과제	히라타 에미	Otani University

20일

교육 / Education 2

사회 김진희 (Nara University)

9:40	나를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할머니 활동가의 경험에 관한 연구	김진희	국립경국대학교
10:10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의 현황과 과제 - 민족정체성의 변천과 관련하여-	문광희	아이치조선학원
10:40	CHALLENGES IN TEACHING MONGOLIAN TO KOREANS	Otgontuul Togtokh, Otgontuya Dashtseren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11:10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교 설립과정 비교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 / Folklore

사회 Liora Sarfati (Tel Aviv University)

13:50	Surprises in Musok Healing Rituals	Liora Sarfati	Tel Aviv University
14:20	“인삼 재배와 관련 문화” 항목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남북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제언	김성순	위덕대학교
14:50	강원도 산간마을의 성인의례과정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 통과례 관례·혼례의 생활문화 변천 맥락에서	박혜인	전 계명대학교
15:20	몽골 예즈하드 석인상과 지리산 성모 석인상에 대한 현대인의 주술적 영력(靈力) 믿음 확대 양상 비교 연구	안영숙	경상국립대학교

19일

남북연 '북한문학의 은유적 서사 연구'

사회 오창은 (중앙대학교)

13:50	재난에 대응하는 과학환상서사	김민선	연세대학교
	1980년대 북한의 임진전쟁 역사소설 연구 - 리영규의 『평양성 사람들』 (1981)을 중심으로	오창은	중앙대학교
	1980년대 북한 대표 단편소설 연구 - 『1980년대 단편선』에 게재된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을 중심으로	오태호	경희대학교
15:50	이문화 접촉으로서의 <이습우화> 연구 -이복과 몽골을 중심으로-	임옥규	청주대학교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젠더화하기 - 자이니치 여성의 노동, 모빌리티, 국가와의 교섭

사회 권숙인 (서울대학교)

16:00	“일하고 일하고 또 일했어요”: 자이니치(在日) 1 세 여성의 노동 경험과 그 의미	권숙인	서울대학교
	재일조선인과 <조국>	야마모토 카오리	아이치현립대학
18:00	개발국가 시기 재일교포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이주 서사 : 젠더 표상과 자이니치 되기를 중심으로	지은숙	서울대학교

20일

코리안디아스포라의 집합적 기억 너머

사회/토론 야마시타 영애 (분쿄대학)

9:40	Another Korean Diaspora: Embodied Affects and Spatial Detachment of Adoptee Narratives in Contemporary Cinema	Suhyun K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전후 일본에서의 일조우호운동-일조협회를 중심으로-	김현수	오사카공립대학
	식민지 조선의 디아스포라(들)-한국 뮤지컬의 독립운동 재현	양인실	이와테대학교
11:40	청년층에 의한 김시종 작품의 수용법 -강연회 「시인 김시종」를 대상으로-	오카자키 료코	나가사키외국어대학

문학 / Literature 1

사회 김종군 (건국대학교)

13:50	해방기 주체의 풍경과 경계인의 시적 사유	김예리	강원대학교
14:20	부패와 정화: 정인택 「단장」과 식민지 말기의 폐쇄	아이카와 타쿠야	도쿄대학교
14:50	북한소설에 나타난 서울점령의 기억과 재현: 한효의 중편 「서울사람들」(1956)	유임하	한국체육대학교
15:20	최인훈의 『화두』의 <화두>의 (화두)	이희재	번역가

문학 / Literature 2

사회 박재인 (건국대학교)

16:00	명나라 사신 程龍의 사행 문학 연구 - 『皇華集』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김영건	고려대학교
16:30	남북의 설화 분야 무형문화유산 지정과 보호 방안	김종군	건국대학교
17:00	몽골과 한국 민담 속 홀수 상징 비교	한다르마, 볼강게렐	몽골국립대학교

19일

남북한 예술 비교 연구

사회 이상숙(가천대학교)

13:50	1952 년 최승희와 북측 예술단의 몽골 방문에 관한 연구	오미영	단국대학교
	경성, 동경, 신경 그리고 평양의 백석	이상숙	가천대학교
	담론 변화로 보는 주체문학예술론의 형성과 전개	이예찬	성균관대학교
	- 강능수의 평론 「혁명과 문학」 수정 및 개작을 중심으로 -		
	이봉구의 '명동' 글쓰기의 또 다른 의미	조은정	성균관대학교
	-반공의 시대에 (남)월북 문인을 호명하는 방법		
16:20	한국, 중국, 일본 노래방 책에 수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음악의 사회문화적 재구성: 대중문화와 이데올로기의 경계	하승희	동국대학교

사역원의 외국어교재를통해본 중세 동아시아의 교류

좌장 정승혜 (수원여자대학교)

16:30	<박통사>의 난해어를 통해 살펴본 한중 언어 교류 -질병 표현을 중심으로	김양진	경희대학교
	『朴通事』의 물가에 대한 비교 연구	서형국	전북대학교
18:00	『박통사』의 문화 교육 내용 연구	장향실	상지대학교

20일

예술 / Arts 1

사회 Haely Chang (Dartmouth College)

10:10	Resonating Traditions: Korean Buddhist Aesthetics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the Second Movement of Haeinshim (海印心) for Geomungo and Western Orchestra	Yoomie Baek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0:40	재일코리아사회에서의 '재일무용'과 '한국전통무용'과의 월경과 융합:재일한국무용가의 의식에 주목하여	서희영	리쓰메이칸대학
11:10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 禮樂오선보 연구 -20 세기 전반 이왕직아악부 악보와 20 세기 후반 국립국악원 『한국음악』을 중심으로-	진윤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 / Arts 2

사회 진윤경 (한국예술종합학교)

13:50	196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술에 있어서 빨찌산표상에 대한 연구:주귀화와 강훈영의 작품 「재봉대원들」을 중심으로	류국강	메이지대학교
14:20	South Korean 예술가들의 창작과 삶에서 나타나는 정(情)과 한(恨) :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의 해석	임성윤	평택대학교
14:50	Curating Multipolarity: Thematic Approaches to Korean Contemporary Art in University Museums	Haely Chang	Dartmouth College

동시대 한국춤 공연콘텐츠의 내셔널리티(민족성)와 로컬리티(지방성)

좌장 최해리 (무용역사기록학회)

15:30	한국 근대춤유산의 재현·복원에 관한 실행연구- 배우자의 신민요춤을 중심으로	김선정	단국대학교
	전북 진안의 문화유산 <금척무>:지역문화콘텐츠의 현황과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이경호	전북대학교
	강릉 관노가면극 원형과 변형을 통한 현대 무용 콘텐츠 제작 사례 연구 : 「단오서곡」을 중심으로	최혜선	단국대학교
17:30	삼척 기줄다리기의 전승현황 고찰	한경자	강원대학교

302		분과회/Session 5	
19일			
경제 / Economics			
사회	미무라 미즈히로 (니가타현립대학)		
13:50	조선의 외국인투자-과거의 분석과 미래에 대한 전망	미무라미즈히로	니가타현립대학
14:20	What the North Korea-Russia Rapprochement Means for Mongolia’s Transit and Transport Network	Sumiya Chuluunbaatar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14:50	Population Aging, Living Arrangements, and Inequality: The Role of Familial Transfers in South Korea	Sang-Hyop Le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5:20	근현대 한일 간 해조류의 상품 연쇄 -톳을 중심으로-	이시카와 료타	리츠메이칸대학
사회 / Society 1			
사회	전철후 (원광대학교)		
16:00	다극화 세계에서의 소프트 파워 역할 -몽골에서의 한국어를 중심으로	강선화, L.Munkhnaran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16:30	김치와 재일조선인 운동	김여경	기타큐슈시립대학
17:00	Koryŏin Maŭl: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ussophone Korean Ethnocultural Enclaves in South Korea	Akulenko Vadim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17:30	고향의 재구성: 조선족과 고려인의 귀환 이주가 한국 다문화 전환에 미친 역할	송창주	University of Auckland
18:00	The Lives of Korean Residents in Mongolia: Adaptation	Tumengerel Purev, Sukhmaa Adiya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20일			
사회 / Society 2			
사회	송창주 (University of Auckland)		
10:10	Deaf communities in the DPRK: empowerment through a shared identity	Jasmine Barrett	University of Melbourne
10:40	The need to study the challeng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Otgonbayar Yadamjav, Ulambayar Odgerel, Dashdavaa Vanchinsuren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11:10	마닐라-아카폴코 갤리언 무역과 라틴아메리카: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이재학	고려대학교
사회 / Society 3			
사회	이재학 (고려대학교)		
13:50	재일조선인에 대한 미세공격—유형, 역사성, 계속되는 식민주의	김우자	리츠메이칸대학
14:20	재일코리아인에 관한 사회운동에서의 ‘시민’ 이란 누구인가 -조선학교 지원을 사례로-	김유현	오사카공립대학
14:50	사건의 반복과 이후-세대 트라우마의 다층성	김종곤	건국대학교
15:20	Recognizing State Violence: Historical Memory and Transnational Solidarity in Jeju and Okinawa	Akino Oshiro, Chihiro Narita	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 Ritsumeikan University
15:50	분단사회의 통일다원주의: 통일 개념의 해체와 재구성	전철후	원광대학교

19일

문화 / Culture

사회 Jaehoon Yeon (SOAS University of London)

13:50	Uncovering Aspects of North Korea's Popular Culture	Roald Maliangka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4:20	Tearing Down Borders: Diasporic Identities, Defection, and Audience Engagement in North Korean Defector Webtoons	Jahyon Park	Wesleyan University
14:50	Revitalizing Tradition: Exploring the Narratives of "Night of Jeonju & Heritage Story"	Hae In Lee Holde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5:20	한국국학진흥원의 K-Story 사업과 그 확장성	조현영, 김진희	한국국학진흥원, 국립경국대학교

Unmasking the Myth:

Decoding the Hidden Narratives and Aesthetics of North Korean Cinema

사회 Cheehyung Harrison KIM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6:00	Representation of Individual Aspirations in North Korean Cinema	Young-a PARK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Cinematic Memory and Ideological Continuity: Visualizing Contemporary North Korean Cinema Through Technological Modernization	Gabor Sebo	Palacký University Olomouc
	Lights, Camera, Juche: The Cinema Revolution of Kim Jong Il	Elizabeth CAMPBELL	Korea University
18:00	From Animosity to Co-Optation: Diverse Portrayals of Religion in North Korean Cinema	Roman HUSARSKI	Jagiellonian University

20일

한(조선)반도의 '연결성' 탐구: 환경과 보건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 이경수 (서울대학교)

13:50	한(조선)반도 '조경(造景)' 개념의 기원과 법제적 발전: 전통 원림에서 현대 도시공원으로	김서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INFECTIOUS DISEASE STATUS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THE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US DISEASES	김수연	서울대학교
	강령국제녹색시범구와 생태적 지역개발 모델 모색	이경수	서울대학교
15:50	한(조선)반도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정원희	강원대학교

과학,기술,의학 /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사회 김태호 (전북대학교)

16:00	광복 후 남측의 과학기술사 연구의 계보와 쟁점	김태호	전북대학교
16:30	남북의료용어집 편찬의 성과와 한계	도원영,박주원, 하신	고려대학교
17:00	PUST: A Case Study of Science Diplomacy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포항공과대학교

19일

정치 / Politics 1

사회 Ulambayar Denzenlkham (몽골 과학 아카데미, 국제학 연구소)

13:50	Contemporary North Korean Depictions of the Future in the 'Socialist Civilization' Discourse	Eetu Laustela	University of Duisburg-Essen
14:20	"평화의 수호자들" - The Polish-North Korean relations based on the documents of the Polish Mission to the NNSC during the Cold War Rivalry	Karol Starowicz	Adam Mickiewicz University
14:50	Inbound Tourism from Japan to the DPRK: Historical Trajectory and Policy Objectives	ISOZAKI Atsuhito	Keio University
15:20	The Era of Chajusŏng: DPRK Foreign Policy Thought in the 1970s	Moe Taylor	Korea Policy Institute
15:50	Lives and Narratives of Korean Women during Communism in Mongolia	Jamiyan Battu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정치 / Politics 2

사회 Karol Starowicz (Adam Mickiewicz University)

16:30	North Korean Public Diplomacy: How Pyongyang discusses relations with Russia for international audiences	Scott Fisher	New Jersey City University
17:00	최근 북한의 대내외 정책과 법제 변화	박정원	국민대학교
17:30	The Uniqueness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Path Toward Its Final Resolution	CHUN Jihoon	Ruhr-Universität Bochum
18:00	Making Live and Letting Die: Elaborating a Genealogical Framework on Examining Power Relations in North Korea	Jake Cowan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20일

정치 / Politics 3

사회 송영훈 (강원대학교)

13:50	The New Formats of Mongolia's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U.S.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Ulambayar Denzenlkham	University of the Humanities
14:20	Mongolia's balancing ac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Dolgorsuren Dorj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14:50	Mongolia's Role in Northeast Asian Security: Mediation Effor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e Ulaanbaatar Dialogue and the Dynamics of Small-State Diplomacy	Munkhzul Bat-Erdene	Freie Universität Berlin
15:20	한국의 대몽골 자원외교와 희소금속 생산협력의 기회 및 과제	Myagmar Dashdavaa	몽골 과학아카데미
15:50	Legal cooperation between Mongo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civil and criminal matters	Mendsaikhan Tumenjargal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19일

철학,종교 / Philosophy,Religion

사회	박민철 (건국대학교)		
13:50	Korean Munch'ang Spirit-writing Scriptures of the 19th Century	김윤경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4:20	1920년대 『開闢』의 유교 비판론 :그 논리적 지평 변화와 사상사적 의미	박민철	건국대학교
14:50	운묵무기(雲默無寄)의 시대비판정신과 정토사상	이병욱	중앙승가대학교
15:20	Elizabeth Anna Gordon and Korean Buddhism: A Pioneer of Interreligious Dialogue in East Asia	Hyangsoon Yi	University of Georgia
15:50	한국불교에서 조왕신앙 수용	장정태	한국서민불교학회

언어 / Linguistics 1

사회	오재혁 (건국대학교)		
16:30	洪武正韻譯訓의 反切再解釋 - 韻類를 중심으로	Rainer Dormels	University of Vienna
17:00	『조선어사전』(1938)을 통해 본 근대 한국어의 표기 변이와 규범화	안예리	한국학중앙연구원
17:30	부사 ‘드디어’의 주관화와 의미 확장	Shen Fenglin, Quan Yonggen	광동외어외무대학
18:00	중국 연변조선어 모음 /ㅅ/와 /ㄴ/의 음가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허진	도쿄대학교

20일

언어 / Linguistics 2

사회	안예리 (한국학중앙연구원)		
9:40	남북 문법에서 보이는 단어의 개념 비교 연구	박효정	한국과학기술원
10:10	남북 말소리 연구의 학술 용어와 개념에 대하여-운율 단위 학술 용어를 중심으로-	오재혁	건국대학교
10:40	‘문장구성론’ 관점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 교재 구성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 출간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2015)을 중심으로	오현아, 전영근	강원대학교, 광동외어외무대학교
11:10	Cho Seung-bog (1922-2012), a Korean-Swedish Linguist, and the North-South Language Homogenization Movement	임경화	중앙대학교

언어 / Linguistics 3

사회	전영근 (광동외어외무대학교)		
13: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폐에 담긴 국가 상징의 시각 언어와 타이포그래피	류현국	츠쿠바기술대학교
14:20	Leveraging ChatGPT for Personalized Pronunciation Correction: An AI-Based Self-Directed Learning Model for Mongolian Learners of Korean	백조은	Korea University
14:50	현대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맥락 속 동포 집단에 대한 인식 : 언어의식, 내집단의의식, 동질감을 중심으로	오새내, 최창원, 이상혁	계명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한성대학교
15:20	Linguistic Patterns in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A Stylometric and NLP Approach	조은경	Sogang University
15:50	한자(漢字) 연구의 방향과 방법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기조강연

Keynote Address

안병우 / Ahn, Byungwoo

한신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남북 역사학 교류와 다극화 추세에서의 전망

박노자 / Vladimir Tikhonov

한신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국제 사회 다극화 시대의 글로벌 코리아학

Sainbilegt.D

몽골국립대학교 교수/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몽골 코리아학의 동향 분석

Oyuntsetseg.D

몽골국립대학교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몽골과 코리아반도 국가 간의 관계

**나라, 파리, 부쿠레슈티, 워싱턴 D.C.
- 냉전시기 남북 역사학 교류의 시작**

안병우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Nara, Paris, Bucuresti and Washington D.C.
-The Begining of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Historians during the Cold War**

Ahn, Byungwoo (Emiritus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주제어 : 남북역사학, 다카마쓰고분가, 국제동양학자대회, 세계역사학회의, 아시아학회
중부대서양협의회

1 . 머리말

남북이 분단된 후 70 여 년 동안 남과 북의 학자들은 각기의 입장에서 역사 연구를 진척시켜 왔지만, 아직도 연구 성과를 자유롭게 교환하며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지 못하고 있다.

1990 년대와 2000 년대 전반기 남북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사업도 펼쳤지만, 현재는 역사학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중단 상태가 길어지면서 남북 역사학 교류는 과거의 기억이 되었고, 언제 재개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관심도 거의 사라졌다.

남북의 역사학 교류는 단기적으로는 민족사를 보는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려는 목적에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추진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역사학 교류는 그 자체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교류사의 일부이고, 남북 학자들이 만나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은 분단 상황을 반영하고 역사학의 지향을 나타내는 학술사의 일부이다.

남북 역사학 교류는 한국 역사의 특정 주제를 다루는 학술회의가 중심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 역사학 교류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 교류 추세를 검토하고 성과와 과제를 도출한 연구, 특정 시대나 분야, 주제의 교류 성과, 그리고 교류를 추진한 주요 단체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활동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 1980 년 중반 이전의 남북 역사학 교류를 다루지는 않았다. 남북 역사학자들은 1972 년 처음으로 학술적 목적으로 만난 이래 1980 년대 중반까지 네 차례 각기 다른 곳에서 만났다. 이 발표에서는 이 네 번의 초기 교류에 관해 살펴보고 한다.

이 시기의 교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 발표문을 남기지 않아 발표 내용은 국내외의 언론 보도와 학술회의 참가자가 남긴 참가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가기나 언론 기사에는 학술회의의 전개 과정이나 발표자의 면모, 분위기 등 발표문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는 장점도 있다.

2. 1970 년대의 남북 역사학 교류

2.1. 교류의 배경

2.1.1.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의 변화

제 2 차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냉전 질서가 1960 년대 말부터 조금씩 완화되고, 분단과 전쟁을 겪은 뒤 극도로 대립하던 남북관계도 1970 년대 전반 일시적 데탕트 시기를 맞이하면서, 남북 역사학이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의 변화는 1969 년 7 월 닉슨 대통령의 궤 선언과 뒤이은 중국과의 화해 교섭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2 년 2 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 정상회담을 하였고, 9 월 일본은 재빨리 중국과 수교하였다. 냉전의 흐름이 갑자기 변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화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협상하면서¹ 남북측에 평화공존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였다.² 데탕트 시기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규정하는 결정적 분기점이었으며,³

¹ 홍석률, 2001 「1970년대 전반 동북아 데탕트와 한국 통일문제-미·중간의 한국 문제에 대한 비밀협상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42, 209쪽

² 남광규, 2016 「남북대화의 국내적 활용과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 『평화학연구』 17권 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32쪽; 홍석률, 2001 위 논문, 239쪽

남북에게는 동맹의 이완으로 인한 안보상의 위기이자 민족 문제를 놓고 대화한 기회였다.

남북은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자주’ 국방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시작하고 다른 진영에 속한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 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개발과 건설과 창조를 향한 선의의 체제 경쟁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는 ‘평화통일구상’을 선언함으로써 남북대화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 8 월 12 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70 년대 한국의 새로운 전략’의 일환이었다.⁴

북측은 닉슨 독트린을 전쟁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 군사동맹을 극도로 경계하였으나, 데탕트를 통일정책 실현의 기회로 판단하여 1971 년 4 월 평화통일방안을 제의하였다. 7 월 닉슨의 중국 방문 계획 발표 후에는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서방국가와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으며,⁵ 8 월에는 남측과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⁶ 남북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⁷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닉슨의 중국 방문과 상해공동성명을 지지하고⁸ 중국과 공조하며 미국에 접근하였다.

1971 년 9 월 20 일 첫 번째 적십자 예비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고, 25 차례의 예비회담을

³ 이동준, 2017 「미중화해와 한반도 문제의 변용, 1971~73년」 『미완의 데탕트-1970년대 초 동북아시아 냉전의 변용』 도서출판 매봉, 16쪽

⁴ 김지형, 2008 「7·4공동성명 전후의 남북대화」 『사림』 30, 수선사학회, 31~36쪽

⁵ 홍석률, 2004 「1970년대 전반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의 관련 하에서」 『국제정치논총』 44집 2 호, 한국국제정치학회, 33쪽

⁶ 동아일보사 안보·통일문제조사연구소, 1976 「南北朝鮮平和協定(読売新聞會見記(1972.1.11))」 『북한대외정책기 본자료집II』, 동아일보사, 343쪽

⁷ 동아일보사 안보·통일문제조사연구소, 1976 「김일성, 뉴욕 타임스지와 회견기(1972.5.26)」 『북한대외정책기 본자료집II』, 동아일보사, 356쪽

⁸ 홍석률, 2004 앞 논문, 37, 36쪽

거쳐 이듬해 8 월과 9 월에 제 1, 2 차 본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을 왕래하며 회담하는 물꼬를 튼 것이다. 적십자 예비회담이 열리고 있던 7 월 4 일 남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남북관계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천명하고 남북 사이에 다방면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7·4 남북공동성명의 결과로 적십자 본회담이 열리고,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남북은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북은 동시에 다른 진영에 속한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섰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 년 연두교서에서 적대적이지 않은 공산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9 월에 민간 경제인단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북측도 소련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⁹ 한편 외교정책의 ‘세계화’를 추진하였다.¹⁰ 1971 년 11 월 당 중앙위원회 제 5 기 3 차 전원회의에서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외교 전술을 전환하면서 60 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경제 교류를 넘어 외교적 차원에서 서유럽 국가 및 일본과의 접촉을 가속화하였다. 이듬해 12 월 김일성 수상은 북측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고 남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했다.¹¹ 이런 방침에 따라 북측은 1972~5 년 사이에 스웨덴, 핀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수교국을 비약적으로 늘렸으며, 국제기구 가입을 확대하고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¹² 특히 북측은 일본과의 예술 도서와 정기출판물 교류 등으로 교류를 확대하였다.¹³ 이러한 외교관계의 변화는 북측

⁹ 신주백, 2002 「북측의 대외관계 연구 II」 『북측의 역사학(1)』 국사편찬위원회, 540쪽

¹⁰ 정규섭, 1997 『북측 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21쪽

¹¹ 동아일보사 안보·통일문제조사연구소, 1976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 김일성 연설(1972.12.26.)」 『북한대외정책기본자료집II』, 동아일보사, 400쪽.

¹² 국토통일원, 1979 앞의 책, 76쪽

¹³ 예. 찌포렌코(대사관 2등서기관), 1959 「비사회주의국가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및 문화적 연계와 그 확대를 위한 조선 정부의 대책(자료)」 『북한관계사료집』 71(국사편찬위원회, 2012, 269쪽

역사학자들이 비공산권국가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남북의 대화 국면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대화에 임하는 남북의 자세가 매우 달라¹⁴ 남북조절위원회는 논쟁과 대립을 계속하였다. 마침내 북측은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한 박정희의 6·23 선언과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납치를 비난하며 1973년 8월 28일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고¹⁵ 미국과 직접 교섭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이 조치는 미국이 전면에서 나서서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하라는 외교적 압박의 일환이었다.¹⁶

같은 시기에 북측과 다른 국가들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1974년 3월 북측이 북미평화협정을 제안하며 미국과 직접 교섭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였다.¹⁷ 주력 수출품인 비철금속 가격의 하락과 2차 6개년계획(1971~6) 동안의 생산 증가율 둔화, 제 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북측이 방만하게 도입한 차관과 누적된 외채 상황을 중단하면서 더 이상 자본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¹⁸ 자본주의 국가들의 신뢰를 잃고 그들과의 경제 교류도 악화되었다.¹⁹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커다란 전환기에 접어들었지만, 남북대화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대화를 통해 여러 이슈를 해결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성숙되지 않았던 데다가 남북측이 내부의 정치문제와 연계하여 대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²⁰ 남측에서는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확보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국사 교육 강화를 꾀하는 퇴행적 길을 걷더니,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대화 같은

¹⁴ 김지형, 앞 논문, 42~43쪽

¹⁵ 그 후에도 북측은 남측의 비열한 배신행위로 모처럼 마련된 대화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다(김일성, 1978. 9. 9 「북측 정권 수립 30주년 기념 <중앙경축대회>의 김일성 보고」 『북한개요』 국토통일원, 1979, 311쪽).

¹⁶ 홍석률, 2004 앞의 논문, 45쪽

¹⁷ 홍석률, 2004 앞의 논문, 47~48쪽

¹⁸ 이태욱, 1989 「제3편 경제 : 자력갱생 정책의 이점과 한계」 『북한 4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성과 변천 과정』(이상우 등), 을유문화사, 206쪽; 정상천, 앞의 논문, 20쪽.

¹⁹ 정규섭, 앞의 책, 138쪽

²⁰ 홍석률, 2001 앞의 논문, 210쪽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혁을 내세우며 10 월 유신을 단행하여²¹ 박정희 영구집권의 길을 열었다. 북측에서는 1960 년대 후반 유일사상체제를 수립하고 주체사상을 역사 연구의 기본으로 삼아 사실상 창의적인 연구를 어렵게 하더니, 1972 년 헌법 개정을 통한 주석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일체제를 제도화하였다. 1970 년대의 남북 역사학은 이러한 경직된 정치적 여건 속에서 내용과 형식의 제약을 받으며 교류를 시작하였다.

2.1.2. 국제 역사학계와의 교류 추진

남북은 일찍부터 세계 역사학계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였고 교류도 추진하였다. 남측에서는 서유럽과 미국의 동향에 유의하며 역사학 발전을 꾀하였으나 1950 년대 말까지도 외국 문화를 섭취하기 위한 학자 교류, 도서 구입 등이 원활하게 진전되지 못하여 한국학계는 고립되어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정도로²² 교류는 제한적이었다. 1960 년대 들어 비로소 국제학술회의 참석, 유학과 외국 대학 체류 등을 통해 세계 역사학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한편 외국에서는 한국전쟁 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한국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학(Korean Studies)이 세계 학계에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이 성립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와 세계 한국역사학계의 교류도 가능해졌다. 한국학을 둘러싼 내외부의 관심 고조와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69 년 9 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미국의 한국학공동위원회가 ‘한국의 전통과 변천’을 주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²³ 이 학술회의는 국내외의

²¹ 경향신문, 1972. 10. 18 “박 대통령 특별선언 전문”

²² 전해종, 1959. 5. 11 「한국학계의 고립성의 극복」 『대학신문』(전해종, 1979 『역사와 문화: 한국과 중국·일본』 일조각, 재수록)

²³ 한국학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는 1967 년 6 월 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와 미국학술단체협의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y) 산하에 설립된 조직이다(옥창준, 위 논문, 153 쪽). 이 학술회의의 결과는 『한국의 전통과 변천』이라는 제목으로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1973 년에 출판되었다.

한국학이 본격적으로 교류하는 길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

북측은 정권 수립 후 주로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들과 과학기술 등 제한된 범위에서 학술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차츰 인문사회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역사학 분야에서도 세계 역사학계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였다. 1955 년 창간된 『력사과학』은 첫해에 소련과 중국 역사학계의 주요 쟁점을 보여주는 논문을 19 편이나 번역하여 수록하였는데, 시대구분과 중세사회의 성격에 관한 논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당시 북측 역사학계의 최대 과제가 바로 시대구분과 각 시대 사회성격의 규정이었던 점과 깊은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번역 논문 중에는 제 10 차 국제역사학회(ICHS)의 학술대회(로마)에서 한 소련 대표의 보고도 포함되었다.²⁴ 역사학자의 외국 방문도 추진하여, 1956 년 10 월 김석형 과학원 력사연구소장이 루마니아에서 한 달 넘게 체류하며 루마니아 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조직과 연구 현황을 자세히 살폈고,²⁵ 이듬해 6 월에는 전석담이 과학원 대표로 우즈베크의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 1 차 쏘련동방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소련과 소속 공화국들, 유럽의 공산국가들, 중국, 베트남 등의 동방학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중앙아시아와 중근동지역의 민족해방운동사 등을 논의하였다. 전석담은 동방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사를 다룬 제 3 분과에 참석하였고, 소련과학원 동방학연구소장 베.게.가푸르보를 만나 두 연구소 학자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선 근세사와 최근세사 부문에 조선 학자들의 의견을 심중하게 참작할 것, 조선왕조실록 복각 사업 지원 등을 요청하였고, 가푸르보 소장은 그의 요청에 공감하면서 동방학연구소에서 북측에 연구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주었다.²⁶ 11 월에는 김일성대학 박시형 교수가 프라하 공산당·노동당 역사위원회 및 연구소 회의에 참석하였고,²⁷ 리나영은 조·월간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월남을 방문하여 시대별 역사 연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였다.²⁸ 북측과 중국 과학원은 1959 년 고종과 순종의 실록을 공동으로

²⁴ 아. 아. 노웨셀쓰끼·웨. 이. 순꼬브, 1956 「쏘련에서의 사료 출판」 『력사과학』 2호, 82~90쪽

²⁵ 김석형, 1957 「루마니아 방문기에서」 『력사과학』 1호, 99~100쪽

²⁶ 전석담, 1957 「제1차 쏘련 동방학자대회 참관기」 『력사과학』 4호, 94~98쪽

²⁷ 중앙일보 부설 동서문제연구소, 1990 『북한인명사전』 중앙일보사, 165쪽

영인 출판하여 중국의 근대사 연구에 조력하였다.²⁹

1960년대 들어 북측은 외국에서 열리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회의에 참여하였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1960년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25차 국제동양학자대회에 처음으로 참가였다. 소련의 초청을 받아³⁰ 참가한 모스크바대회에는 20개의 분과가 개설되었는데, 처음으로 개설된 '조선분과'에서 모두 13편(북측 6, 소련 6, 독일 1/언어 3, 문학 3, 역사 6, 정치 1)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모두 공산권 학자들이고, 남측은 물론 서구의 학자도 없었다. 북측에서는 6명이 발표하였는데, 고고학자인 도유호가 「기원전 3~2세기에 북부 조선의 금속기 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새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근거로 국가로서의 고조선의 존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김석형은 「3국 시기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해방 후 수집 정리한 고구려 고분 벽화를 많이 소개하였으며, 박시형은

「조선에서의 금속활자의 발명과 그 후 발전」 발표를 통해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유구성을 강조했다. 고조선의 건국과 문화사 분야에 집중된 발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홍기문과 최정후가 언어, 양형섭이 정치 분야에서 발표했으며, 언론은 이를 상세히 보도하였다.³¹ 그러나 북측 역사학의 대외 교류는 여전히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에 제한되었다.

북측 역사학의 대외 교류는 1970년대에 더 활성화되었다. 1970년 8월 국제역사학회에 가입하여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하였으며, 1972년 다카마쓰고분을 실사하기 위해 김석형 등이 일본을 방문하여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듬해 파리의 국제동양학자대회에도 참가하였고, 1980년에는 루마니아의 국제역사학회의 학술회의에 참가하였으며, 11월에는 박시형이 일본을 방문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이노우에

²⁸ 리나영, 1957 「월남에서의 역사과학의 발전」 『역사과학』 6호, 73~80쪽

²⁹ 아. 뿌자노브(북측 주재 소련대사), 1960. 3. 21 「소련 내각 국가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계. 아. 쥬꼽, 동지 앞」 『북한관계사료집』 72(국사편찬위원회, 2012), 60~61쪽; 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1380쪽

³⁰ 아. 에르마코프(북측 주재 소련대사관 1등서기관), 1960. 4.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문화연락위원회 1국 참사 전해영과의 담화록」 『북한관계사료집』 72(국사편찬위원회, 2012), 108쪽

³¹ 민주조선, 1960. 8. 13, “제25차 국제동방학자대회에서 우리나라 역사 및 문화 문제를 토의”. (학계소식 「국제동방학자 제25차 대회」 『역사과학』 1960년 6호, 55~57쪽).

히데오(井上秀雄)와 한일 고대사 문제에 관하여 대답하는³² 등 유럽과 일본으로 교류를 넓혔다.

1970년대까지 북측 역사학계의 대외 교류는 김석형과 박시형이 주도하였다. 교류의 대상은 소련과 중국, 동유럽에서 일본, 프랑스 등으로 차츰 확대되었다. 교류의 내용은 방문, 강의, 학회 참석, 자료 공유 등 다양하였으며, 국제역사학회에도 가입하였다. 북측은 소련·중국과 가장 긴밀하게 교류하였지만, 소련이 발간한 세계사에서 한국 역사를 잘못 서술한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엄중하게 비판하는³³ 모습도 보였다.

2.1.3. 역사학의 발전과 연구 성과의 축적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을 거치며 마르크스주의와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대부분 월북하거나 납북되어 남측에는 문헌고증사학 계열의 학자들만 남았고, 그에 기반을 둔 진단학회가 역사학계를 주도하였다. 역사학의 이념이나 사관이 빈약한 채 단편적 사실의 규명에 전념하는 문헌고증사학을 비판하는 소장 학자들이 1952년 3월 ‘한국을 위한 역사학의 재건’을 표방하며 역사학회를 창립하였으나, 뚜렷한 방향이나 이념을 제시하지 못하여 당시 역사학계의 풍토를 바꾸지는 못하였다.³⁴

1960,70년대 한국사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4월혁명으로 민족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민족민주운동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역사학 분야에서는 식민사학의 청산과 새로운 역사학의 수립을 모색하게 되었다. 사학사 정리를 통해 일제 식민사학과 그 아류인 실증사학을 비판하고 민족주의사학을 계승하려 하였다. 민족사학 내부에는 민족문화론 계열의 문화사와 국수주의, 내재적 발전론 계열의 사회구성사와 근대주의 경향이 병존하였다. 이들 가운데 가장 치열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회구성사

³² 박시형, 1981 「朝鮮史研究において達成した成果について」 및 「對談：日朝古代史の諸問題」 『東アジアの古代文化』 27

³³ 김석형·김희일·손영종, 1963 『《전 세계사》(소련 과학원 편) 조선 관계 서술의 엄중한 착오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³⁴ 이세영, 1988 「현대 한국 사학의 동향과 과제」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 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이영호, 1994 「해방 후 남측 역사학계의 한국사 인식」 『한국사』 23, 한길사, 177쪽

경향의 학자들은 사회경제적 토대의 해명에 중점을 두고 전체 사회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사의 주체적 내재적 발전 과정을 합법칙적으로 인식하려 하였으며, 특히 조선 후기 경제와 사회, 문화와 사상 등에서 나타난 역동적 발전상 규명에 집중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구성의 역사상을 제시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근대주의 경향은 주로 사회경제사와 한말 일제강점기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경제발전의 주체와 방향은 문제 삼지 않고 양적 성장을 중시하여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는 논리로 기능하였다.³⁵ 문화사학은 역사를 “각 시대마다 부딪칠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의 연속”이라고 정의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조화의 관계’를 중시하며³⁶ 거시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인 통찰과 정신사적 시각을 강조하였으나 문화적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여 제국주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각 분야사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데 커다란 한계를 지녔다.³⁷ 관변에서는 민족주체사관을 정립하려 하였고 유신 이후에는 국수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국사 교과서를 국정제로 변경하였다. 결국 민족사학론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새로운 역사학의 수립을 추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1967 년 한국사연구회가 창립되었고, 이들의 노력은 한국사 시대구분에 관한 논의도 촉발했다.³⁸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왕조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한 여러 권의 통사를 거쳐 지배세력의 변천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한 이기백의 『한국사신론』이 발간되어 시대구분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오랫동안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³⁹ 1970 년대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성장 발달을 바탕으로” “민족주체성에 입각하여 내재적 발전을 부각시키는” 『한국사』 23 권을 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³⁵ 이영호, 1994 앞의 논문, 193, 196쪽

³⁶ 김철준, 1983 『한국문화전통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79, 169쪽

³⁷ 이영호, 1994 앞의 논문, 184~185쪽

³⁸ 대표적인 논의는 1968년에 있었던 한국경제사학회 주최 토론회였으며, 그 결과는 『韓國史時代區分論』(韓國經濟史學會 編, 1970, 乙酉文化社)으로 출판되었다.

³⁹ 이기백, 1967 『한국사신론』 일조각

그런 상황에서 1970년대 후반에 강만길 교수가 분단시대 사학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당시의 역사학을 ‘현재성 부재’의 역사학이라고 평가하고 민족사학이 등한시해 온 남측 사회의 성격이나 분단과 예측이라는 민족 문제를 거론하며 당시의 역사학을 분단시대 역사학이라고 규정하고 통일 지향의 역사학을 제창한 것이다.⁴⁰

북측은 1950년대 중반부터 역시 일제의 식민사관 특히 정체론을 불식시키고 한국사가 보편적 발전 과정을 밟아왔음을 밝히기 위해 시대구분과 고대·중세 사회의 기본 성격, 부르조아 민족 형성, 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 문제는 1956년 『조선통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심각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었으며, 이 문제를 다룬 개별 논문이 계속 발표되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축적되자 과학원 력사연구소가 일련의 토론회를 조직하여 집단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⁴¹ 이들 토론회는 월북측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백남운, 김석형, 전석담 등이 이끌고 당시의 역사학자 거개가 참여한 거국적 행사였다. 이 연구와 토론회는 학술사적으로 일제시기와 해방 직후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의 연구를 계승하면서 논쟁을 일단락짓는 것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한국사의 발전 과정에 관한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이후 한국사 연구는 이때 결정된 큰 틀 안에서 수행되었다.

북측의 역사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역사학계가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적유물론에서 주체사관으로 바꾸는 작업은 한동안 진통 속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다. 1960년대 초반에 있었던 활발한 논쟁은 자취를 감추었고, 대표적인 학술지 『력사과학』의 발행도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1967년 6호(누계 74호)를 발행한 뒤부터 77년 1호(누계 81호)가 발행되기 전까지 9년 동안에 여섯 권만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⁴² 1973년에는 아예 『사회과학』에 통합되었고 2년

⁴⁰ 강만길, 1978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⁴¹ 1956년의 ‘삼국시기의 사회경제구성에 관한 토론회’(10.31~11.2)와 ‘조선에서의 부르조아 민족 형성에 관한 토론회’(12.4~6), 이듬해의 ‘조선 근세사의 시기 구분에 관한 과학토론회’(5.31),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있어서 민족부르조아지에 관한 과학토론회’(10.16)와 ‘조선 봉건시대의 토지소유관계에 관한 과학토론회’(10.25~26) 등이 그것이다.

뒤에는 역사학이 사회과학에 포함되었다가 1977 년에 다시 독자 분야로 회복되었다. 속간 이후에는 간기도 격월간에서 분기로 바뀌었다. 역사학의 존립이 위협받는 진통을 겪으며 역사학자들은 이전보다 더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게 되었고, ‘현재’라는 시점에 시선을 집중하며 노동당이 제시한 과제 해결에 힘을 모았지만 혁명 역사 분야가 분리 독립하면서 역사학의 사회적 위상은 낮아졌다.⁴³

그런 가운데서도 이전의 사업은 계속하였다. 1961 년부터 고전연구소 리조실록 연구실이 준비해 온 조선왕조실록 번역이 1971 년 2 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⁴⁴ 1975 년

『리조실록』 1 권을 출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뒤 매년 꾸준히 간행하여 1991 년 순종실록까지를 모두 400 권으로 완간하였다. 1971 년에는 『력사사전』 두 권도 발간하였다.

이렇게 남북의 역사학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연구 성과가 축적된 점이 교류의 배경이자 기반이 되었다. 남북은 분단될 때부터 역사관을 달리했지만, 남북의 역사학자들은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우리 역사를 자주적 발전적으로 파악하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비록 분단 체제 아래에서지만 식민사관을 청산하고 한국사의 발전적 모습을 부각하는 연구를 정력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1970 년대에는 시대구분, 고대사회의 성격, 봉건사회의 존재 여부와 그 성격, 토지소유관계, 조선후기 사회의 전반적 발전, 특히 자본주의적 관계의 형성 등의 연구에서 남북이 새로운 성과를 상당히 축적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남북 역사학이 교류할 수 있는 지적 재산이자 자신감의 원천이었으며, 상대방의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2.1.4. 남북 역사학에 대한 상호 관심

남북 정부와 역사학자들은 일찍부터 상대방의 연구 동향과 성과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역사 연구가 체제의 정통성 및 우열과 관련된 문제였으며, 학문 차원에서는 서로

⁴² 필자는 1968~1976년에 간행된 『력사과학』은 보지 못했다.

⁴³ 김광운, 2003 「북한 역사학계의 구성과 활동」 『북한의 역사 만들기』 푸른역사, 40~41, 47쪽.

⁴⁴ 최문식, 2017 「조선의 리조실록 번역과 연구」 『무주 적상산사고 조선왕조실록 보존·활용 방안』(무주군 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다른 연구 환경과 역사관에 입각한 민족사 연구의 성과를 섭렵하고 평가해야 할 책임감과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러한 관심의 일단을 북측이 1960 년 진단학회가 편찬한 『한국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분석 평가한 데서 볼 수 있다,⁴⁵ 고조선사 연구자로 널리 알려진 리지린은 『한국사』가 해방 20 년이 지난 시점에도 식민주의적 역사관을 그대로 추종하여 민족의 긍지를 모독하고 인민의 이익을 배반하는 또 하나의 어용 『조선사』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⁴⁶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 학술교류를 제안하였다. 1966 년 3 월 도유호 과학원 고고학·민속학연구소장이 남북 고고학자의 공동연구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5 월에 남북측 유물에 관한 연구 성과의 교류를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하였고,⁴⁷ 8 월에는 김석형 력사연구소장이 남북 학술교류를 제안하였다.⁴⁸

남측에서도 1962 년에 북측이 발간한 『조선통사』와 고등학교 교과서 등을 분석하여, 북측 역사학이 고고학이라든가 경제사 사상사 분야에서 “상대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시할 수 없는 업적들이 있다.”고 30 년 동안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유물사관의 공식적 이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다.⁴⁹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상대방의 연구 성과를 직접 접하기는 어려웠다. 남측 역사학자들은 개인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기회에 북측의 역사 연구 성과를 접할 수 있었고, 때로는 그에 자극받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북측의 선도적 연구 성과에 주목하였고, 이미 1950 년대

⁴⁵ 리지린·리상호, 1965 「《한국사》를 평함-고대를 중심으로」 『력사과학』 5호; 김석형·김세익, 1966 「《한국사》를 평함 (2)-3국~고려 시기를 중심으로」 『력사과학』 1호; 김석형·장국종, 1966 「《한국사》를 평함(3)-15~19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력사과학』 2호; 오길보, 1966 「《한국사》를 평함(4)-19세기 후반기~20세기 초엽을 중심으로」 『력사과학』 4호

⁴⁶ 리지린·리상호, 1965 위 논문, 38쪽.

⁴⁷ 중앙일보 부설 동서문제연구소, 1990 『북한인명사전』 중앙일보사, 144쪽

⁴⁸ 중앙일보 부설 동서문제연구소, 1990 『북한인명사전』 중앙일보사, 64쪽

⁴⁹ 북한연구소, 1978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조선사」 비판』 39~40쪽

후반에는 자기들의 연구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남측은 이러한 일본 학계의 동향을 통해 북측의 성과를 인지하였다. 일찍부터 동아시아의 역사학은 물밑에서 은밀하게 교류되고 있었던⁵⁰ 것이다.

2.2. 우연한 계기와 계획적 만남

2.2.1. 나라(奈良) 다카마쓰고분(高松塚) 공동 실사

남북 역사학자들이 만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일본 나라에서 발견된 다카마쓰고분이었다. 이 고분은 1972 년 3 월 나라현 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가 발굴 조사하였는데, 황구식 석곽 안에서 극채색의 벽화가 발견되었다.⁵¹ 석곽에 사용된 응회암의 절단면에 얇게 바른 양질의 회반죽 위에 그린 이 벽화는 종래 장식고분으로 불려 온 북 큐슈의 고분군이나 간토지역 고분과는 전혀 이질적인 것으로,⁵² 일본 열도에서 벽화 고분을 만들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벽화는 네 벽과 천정에 그렸지만, 남쪽벽의 벽화는 도굴 과정에서 손상되었다. 동쪽벽에는 중앙에 청룡, 그 위에 해 모양, 남쪽에 남자 넷, 북쪽에 여자 넷을 그렸고, 서쪽벽에는 중앙에 백호, 그 위에 달 모양, 남쪽에 남자 넷, 북쪽에 여자 넷을 그렸다. 북쪽벽에는 현무를 그렸고, 천정에는 성수도를 그렸다.

다카마쓰고분 발굴은 일본과 한국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학계와 언론계는 심포지엄이나 좌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거나 신문에 게재하였다.⁵³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고분의 축조 시기는 아스카시대 혹은

⁵⁰ 신주백, 2013 「1950년대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동북아시아에서 지식의 내면적 교류」 『한국사연구』 160

⁵¹ 奈良縣橿原考古學研究所 編, 1972. 4 『飛鳥高松塚』 奈良縣高市郡明日香村: 橿原考古學研究所 編, 1972. 10 『壁畫古墳 高松塚(調査中間報告)』 奈良縣教育委員會·奈良縣明日香村

⁵² 網干善教, 1972 「壁畫」 10 『壁畫古墳 高松塚(調査中間報告)』 51쪽

⁵³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심포지엄이나 발간된 도서, 기고문 등의 목록은 橿原考古學研究所 編, 1972. 10, 위 보고서, 68쪽에, 6건의 좌담회 내용은 末永雅雄 編, 1972a 『飛鳥高松塚古墳』 學生社, 323~371쪽에 수록

天智天皇(662~671) 때, 704 년 이후로 추정하고, 석곽의 규모와 형식이 비슷한 외국 사례로 평남 대동군 토포리 고분들과 부여 능산리 3 호, 5 호 고분을 거론하였다. 중요한 논점이 된 벽화와 관련하여, 당시 화가의 주류는 고구려계였지만 東漢과 백제계 화가의 존재도 고려해야 하며, 인물상은 고구려와의 공통성을 지적하면서도 일본 풍속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⁵⁴ 그리고 이 고분에는 동아시아의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만큼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의 학술 교류를 제안하였다.

해외 특파원들은 남북과 중국의 학자들을 면담하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서울대 김원룡 교수, 이화여대 진홍섭 박물관장, 연세대 손보기·조경철 교수, 동덕여대 석주선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최순우 미술과장을 면담한 결과를 4 월 17 일에 보도하였다. 한국 학자들은 다카마쓰고분은 고구려 및 백제 묘제와 유사한 한국계 고분이며, 벽화를 그리는 수법도 고구려와 흡사하다고 평가하고, 고구려와 가장 유사한 점으로 한결같이 부인상의 복장을 지적했다. 이어 중국 中山大學 商承祚·李松生 교수의 의견을 25 일 보도하였고, 5 월 1 일에는 이 고분은 높은 지위에 있던 삼국계 이주민의 무덤이고, 그들이 고분을 축조하고 벽화를 그렸다는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의 견해를 보도하였다. 아사히신문은 21 일 평양에서 김석형 력사연구소장, 주영현 고고민속연구소 부소장 등 네 명을 인터뷰하여 22 일 보도하였는데, 김석형은 이미 고분벽화 사진을 보았다면서 “벽화는 婦人像의 의상 등으로부터 고구려 문화 그 자체로 추정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고분이 고구려 것과 유사하고, 부인상과 사신도의 화법이 동일하게 보이며, 부인의 머리카락의 의상이 고구려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⁵⁵

4 월부터 다카마쓰고분 조사 업무를 넘겨받은 일본 문화청은 10 월 초 남북과 중국 학자를 초청하였다. 남측에서는 김원룡 서울대 박물관장을 단장으로 김재원 학술원 회원, 최순우

되었다.

⁵⁴ 末永雅雄·井上光貞 編, 1972a 위 책, 92, 46, 151~156쪽

⁵⁵ 이들 신문 기사는 末永雅雄 編, 1972a 『飛鳥高松塚古墳』學生社, 181~193쪽에 수록되었다.

박물관 미술과장, 이기백 서강대 교수가, 북측에서는 김석형 소장을 단장으로 주영헌 부소장, 김일성대 金石俊 교수, 중앙력사박물관 金鐵浩 학술원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중국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남북 대표단은 각기 고분을 조사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남측은 고분벽화가 고구려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동아시아문화의 여러 요소가 복합된 일본 문화가 낳은 8 세기 초기의 고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에 비해 김석형 단장은 “고분의 구조와 형식이 고구려 고분과 같고, 고분 축조에 사용한 자(尺)가 고구려 것이며, 벽화의 주제나 인물, 사신도의 배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다까마쓰고분은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⁵⁶ 그러한 견해는 김종혁에 의해 계승되었다.⁵⁷

벽화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 고분이 일본에서 축성된 의미는 당, 고구려, 육조의 여러 요소를 혼재시키고 있는 점에 있다며,⁵⁸ 여러 문화를 수용하여 조성한 점에 역점을 두었다. 그런 점에서 남북과 일본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견해를 피력하였다. 남북은 고분과 벽화가 고구려의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보는 데서는 일치하였지만,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남측과 일본은 고구려 고분을 바탕으로 당과 일본 토착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데서는 일치하였지만, 남측이 피장자와 화공을 모두 한국계로 보는 데 반해 다수의 일본 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 점에서 달랐다.⁵⁹ 이 고분의 축조 시기와 피장자, 그리고 문화계통에 대하여는 지금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본격적인 남북 학자들의 교류는 TV 좌담회에서 이루어졌다. 4 일 밤 NTV 가 주최한 좌담회에 3 국에서 각기 4 명씩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⁵⁶ 동아일보, 1972. 10. 6 “東亞文化의 복합제품”

⁵⁷ 김종혁, 1985 「수산리벽화무덤과 다까마쓰무덤」 『역사과학』 2호

⁵⁸ 秋山進午, 1972 「唐代壁畫墓と高松塚古墳」 『シンポジウム高松塚壁畫古墳』(末永雅雄 編), 262쪽

⁵⁹ 『신동아』, 1972 「남북 학자의 대면」 12월 호, 373쪽

같았으나, 대면 토론을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일 밤 NHK TV 가 주최한 공동좌담회에는 남북 학자가 두 명씩 참가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거듭 피력하였다.⁶⁰

남북 학자들은 이 고분의 근본이 고구려계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북측 학자들은 고분 조성 연대를 고구려가 멸망하기 이전인 6 세기, 늦어도 7 세기 초로 잡고 고구려와 직접 연결시킨 반면 남측 학자들은 조성 시기를 고구려 멸망 뒤인 7 세기 말에서 8 세기 초로 잡고 일본에 진출한 고구려계 사람들의 작품으로 보았다.

김원룡은 처음 만나 직접 간접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 뜻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북 학자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매우 피상적인 수준이었다. 김석형 단장은 5 일 일본 학자들과 ‘삼한삼국분국설’에 관하여 토론회를 가졌고,⁶¹ 북측 대표단은 도쿄로 이동해 중의원으로 북측우호증진연맹 간부들을 방문하고 평양과 도쿄 사이의 과학 교류 증진에 합의했다.⁶² 남측 학자들도 역시 도쿄로 이동했다. 민단과 조총련이 함께 만든 조선장학회에서 강연회를 조직해 이기백 교수가 오전에, 김석형 소장이 오후에 각기 남북의 고고학 현황에 대하여 강연하게 하였다. 남북 학자들이 다시 만났으며, 이때 김원룡은 자신의 저서 『고고학개론』을 김석형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⁶³

다카마쓰고분 공동 실사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낳은 역사학 분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미리 조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7.4 남북공동성명과 적십자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측 학자들이 나라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⁶⁴ 남측 학자들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 학자의 만남을 ‘남북적십자회담의 별다른 성과의 하나’로 간주한 김원룡의 이해도⁶⁵ 일리가 있다.

⁶⁰ 동아일보, 1972. 10. 6 “東亞文化의 복합제품”

⁶¹ 동아일보, 1972. 10. 6 “김석형·일본학자 「삼한삼국분국설」 토론”

⁶² 동아일보, 1972. 10. 13 “일·북측 과학교류 합의. 김석형, 親共 의원 만나”

⁶³ 동아일보, 1972. 10. 11 “남·북학자 별도 고고학 강연. 도오교 조선장학회서 오전 오후 나뉘”

⁶⁴ 동아일보, 1972. 5. 31 “日 문부성 다카마쓰고분 고분 공동연구 위해 북괴 학자 초청 추진”; 동아일보, 1972.

9. 15 “日 문화청 다카마쓰고분 학술조사 남북 학자 네 명씩 초청”

다카마쓰고분 조사는 남북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이 처음으로 교류하는 기회였고, 이후 남북 역사학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북측이 역사학 교류를 위해 자본주의 국가를 방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측은 이를 디딤돌로 삼아 이듬해 아시아를 넘어 파리 국제동양학자대회에 참가하였고, 이후 국제역사학회와 AAS 학술회의 등에 잇달아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때 참여한 우에다 마사아키, 김원룡, 김석형, 주영현, 그리고 오지는 않았지만 초청 대상자였던 중국의 王健群 등이 주축이 되어 1990 년 아시아사학회를 창립하는 기반이 된⁶⁶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카마쓰고분 조사에서의 만남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먼저 한국사 문제가 아니라 일본 유적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난 점이다. 다카마쓰고분은 한국 고대사 특히 고구려와 관련이 깊은 주제이지만, 엄밀하게는 일본 혹은 동아시아 고대사의 문제이다. 또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회의라기보다 유적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성격의 학술모임이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사전에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기는 하였지만, 현장 설명회 내지 간이 학술회의 성격이 짙었다. 남북 학자들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남측 학자들은 4 일 오전에, 북측 학자들은 오후에 고분 내부를 조사하였고,⁶⁷ 일본 학자들과도 따로 협의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다른 공간에서 별도로 가졌다. 일본측에서 남북 학자의 회동을 주선했지만, 그마저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⁶⁸ 남북 학자들 사이에 깊이 있는 학술 토론의 기회를 갖지는 못하였다.

2.2.2. 파리 국제동양학자대회(ICAS)

남북의 역사학자들은 1973 년 7 월 16 일에서 21 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 29 차

⁶⁵ 김원룡, 1972, 10. 7 「日 다카마쓰벽화는 선명한 極彩色」 『동아일보』; 김원룡, 1972, 10. 12 「국제양식화한 고구려 벽화」 『동아일보』

⁶⁶ 서울신문, 2016. 3. 15 “도래인 용어 정착 - 고대사 거목 떠나다”

⁶⁷ 동아일보, 1972. 10. 4 “다카마쓰고분 종합조사 본격화”

⁶⁸ 동아일보, 1981. 12. 4 “동아인터뷰 남북측 문화재 교류 - 고고학계 원로 김재원 박사”

국제동양학자대회에서 다시 만났다. 남북에 정부가 들어선 지 실로 25 년 만에 남북
역사학자들이 국제학술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나 발표하고 토론한 것이다. 학회 창립 100 주년
기념으로 열린 파리대회에는 63 개국에서 2 천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과 일본 분과’가
개설되었다. 남측에서는 유홍렬(1911~1995) 교수 등 23 명이 참가하였고, 북측에서도
최선옥(사회과학원 원사, 박사, 교수, 소장)을 대표로 11 명(1 명은 통역)이 참가하여 9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밖에 재외 한국학자도 20 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 관계로 발표된
논문은 64 편(남 42, 북 8, 재외 8, 기타 외국학자 6)이나 되었다.⁶⁹

남북 학자들은 고고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유홍렬(성균관대 교수), 「19 세기의 한국 근대화에 대한 프랑스 신부들의 영향」
최호진(연세대 교수), 「한국 개항과 관세 문제」
전호영(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고고학 발전에
대하여(고구려 무덤 벽화에 대하여)」
이봉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학회의 성과」⁷⁰

고고학 분야의 주제는 ‘한국·중국·일본에서의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이었다. 고구려 고분 벽화
영화도 상영하였지만, 북측의 고고학 현황이나 고대사의 시기구분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기회는 없었다고 한다. 남측에서는 김원룡 교수가 참가하여 통구 무용총 고분벽화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역사학 분야의 이봉현은 시대구분을 중심으로 북측 역사학의 발전 과정을

⁶⁹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3천여 명이 참석했다고(1973. 8. 8 “「파리」 동양학자회의 결산”) 하였으나, 동반한 가족
들을 제외하면 학자는 2천 명 정도였다고 한다(고병익, 1973 「파리에서의 동양학자대회」 『새교육』 11월호,
대한교육연합회: 1974 『망월경』에 재수록, 탐구당, 337쪽).

⁷⁰ 북측에서는 이들 이외에 최일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예술 문학의 발전」을 비롯해 최준옥, 박철
수, 지동원, 김성철, 안용전, 김기준 등이 9편의 논문을 발표했다(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1945년~1982
년』 1,382쪽). 중앙일보의 위 기사에서는 전호영을 고고학연구소장으로 45세, 이봉현은 33세의 여성 학자이
며, 발표 제목을 각기 「고구려 고분벽화」와 「북한 역사과학의 발달」이라고 보도했다.

전반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이며 구석기 유적 발굴 성과를 기초로 고조선이 기원전 8 세기에 성립하였고 노예사회였던 고조선에서 봉건국가적인 고려와 조선을 거쳐 갑신정변에 의해 자본주의가 성립되었다고 하였다.⁷¹

파리 동양학자대회는 남측의 6·23 선언과 북측의 대화 중단 선언 사이에 열렸다. 정부에서는 북측이 파리대회에 참가할 것을 알고,⁷² 대규모로 학자들을 ‘과견’하여 의도적으로 남북 학자들의 만남을 추진하였다. 문화공보부가 이를 주관하였지만, 실제 결정의 주체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북측 학자들의 주장을 직접 접하고, 남측 학자들의 우위를 확인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함병춘 정치 담당 특별보좌관을 통해 대회 상황을 보고받았고, 개막식 만찬도 제공하였다.

남북대화를 통해 분단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북측 실정을 탐색하려고 한 정부는 남북 학자 교류를 통해 북측 역사학의 실정을 파악하고 당면한 현실 즉 유신체제의 출범과 6·23 선언에 관해 국제 사회에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대회는 해방 후 남북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교류한 첫 국제학술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막상 북측 학자들을 만난 소감은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학술적으로는 연구방법론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인식하고, 고고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남북의 공동연구가 요청되며, 순수한 학술 연구와 발표를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⁷³

파리대회 참가로 북측 역사학의 실상을 직접 접하고 남북 역사학이 매우 다름을 확인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한 번의 만남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단계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러한 점이 오히려 교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0 년대의 역사학 교류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다. 남북이 각기 유신체제와 유일체제를 구축해 가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적대적 공생관계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⁷¹ 중앙일보, 1973. 8. 8 “「파리」 동양학자회의 결산”

⁷² 중앙일보, 1973. 6. 22, “파리 동양학자대회에 40명 참가기로”

⁷³ 중앙일보, 1973. 8. 8 “「파리」 동양학자회의 결산”

3. 1980 년대의 남북 역사학 교류

3.1. 교류의 배경

3.1.1.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의 변화

1969 년부터 시작된 데탕트가 10 년 만에 막을 내리고 동서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 이른바 신냉전 혹은 냉전후반기(1979~1985)로 불리는 1980 년대 전반기에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제 3 세계의 공산 정권에 반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므로 제 3 세계가 주요 갈등의 무대가 되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 니카라과를 장악하고(1979.7) 혁명적 국제주의 정책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추진하며 엘살바도르의 혁명 세력 지원을 확대하자 미국은 그에 맞서 ‘콘트라’ 반군을 조직하여 니카라과 공격을 계획하고 엘살바도르 내전에 개입하였다.⁷⁴ 그리고 1979 년 3 월 이후 인민혁명정부가 지배하던 카리브해의 그레나다공화국을 침공해 장악하였다(1983. 10). 미국은 이란-이라크전쟁(1980.9~1988.8)에서도 이라크를 지원하여 이란 혁명이 중동에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소련도 확장주의 정책을 취하였다. 1978 년에 수립된 아프가니스탄 공산 정권이 전통 무슬림의 공격으로 통치력을 상실하자 소련은 급히 군대를 파견하였다(1979.12). 내전을 틈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확장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미국은 소련에 저항하는 무자헤딘 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소련은 9 년 넘게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1989.2).⁷⁵ 제 3 세계 급진주의 국가들은 1985 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전부터 소련식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영향 등으로 점차 시장 지향적 경제로 이행하였다.⁷⁶

⁷⁴ 오드 아르네 베스타 지음, 옥창준·오석주·김동욱·강유지 옮김, 2020 『냉전의 지구사-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 세계』 에코리브르, 550~552, 556~557쪽

⁷⁵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하여는 오드 아르네 베스타, 위 책 561~576쪽 참고.

⁷⁶ 오드 아르네 베스타, 위 책 584~585쪽

동아시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은 데탕트 말기인 1978년 12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공식화하였다.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해안 도시부터 차츰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장경제이행기(1978~1992)에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남북은 1980년대 초의 불황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공세적으로 외교를 전개했다. 남측에서는 1979년 10월 18년 동안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지만 신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를 이어갔다. 그러나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가 한국에 불시착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처음으로 외교 교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북방외교’를 추진하였다. 중국도 1970년대 이래로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관심을 가졌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 요구도 있었으나, 북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진척은 더뎠다.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대한항공 007편을 격추하여(1983. 9) 소련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게 되었다.

북측도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⁷⁷ 남측이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공산권 국가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북측이 남방정책을 추진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면서 남북 사이에도 대화의 창구가 열렸다.

남북관계는 갈등과 대화 국면을 오가며 서서히 개선되었다. 박정희 피살 이후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거세게 비난하던 북측은 1983년 버마 아웅산국립묘지에서 폭탄테러를 감행하였다(10.9). 이 테러로 버마를 방문 중인 대통령 수행원과 기자 17명이 폭사하였다. 버마는 북측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남북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⁷⁷ 이상숙, 2024 「1980년대 중반 북측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 『통일과평화』 16-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73쪽

그럼에도 북측은 1984년 1월 11일 한미와의 3자회담 개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남북 사이의 불가침선언 채택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측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미국이 4자회담을 제기하여 북측의 제안은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북측이 테러 국면에서 벗어나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을 공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대화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북측의 제안을(3.30) 남측이 받아들여 제 1차 체육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면서 시작되었다(4.9). 비록 체육회담은 6월에 결렬되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북측에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8.21). 북측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수해를 당한 남측에 구호물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9.8). 남측이 이를 수용하여 6년 9개월 만에 적십자회담이 재개되었고, 북측의 물자가 판문점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다(9.29~10.4). 남측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회담을 잇달아 제안하고 북측이 수용하여 제 1차 경제회담(11.15)과 적십자회담(11.20)이 열렸다.⁷⁸ 1984년은 여러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활성화된 해였다.

1985년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서 고위급 정치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표명하였다. 팀스피리트 훈련으로 남북 관계가 일시 냉각되었으나 경제회담이 재개되고(5.17) 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렸으며 국회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도 시작되었다(7.23). 그리고 남북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이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하여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예술인들이 공연하였다(9.20~22).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대화는 북측과 미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록 3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북측 역사학자들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남측 학자들과 함께 학술회의에 참가하였다. 3자회담이 형태를 달리하여 역사 분야의 교류로 워싱턴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후 미국은 1989년 4월에도 하와이대학이 초청한 주체사회과학원 박창곤 부원장 등 3명의 입국을 허용하는⁷⁹ 등 북측 학자에게 제한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였다.

⁷⁸ 정규섭, 2004 「1980년대 북한의 외교와 대남정책」 『현대북한연구』 7-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쪽

⁷⁹ The Korea Times Hawaii, 1989. 4. 5 “북 학자 3명 호놀룰루 도착”; The Korea Times Hawaii, 1989. 4. 12

“북측 학자 3명 14일 귀국 예정”; Honolulu Star-Bulletin, 1989. 9. 28, 서대숙 기고문 “UH can help

3.1.2. 역사학의 변화

남측에서는 1980 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며 민중세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민족·민주운동이 활성화되었다. 1970 년대 후반에 등장한 민중론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체논쟁과 변혁 논쟁,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역사학계에서도 민중사학론이 등장하였다. 1980 년대의 변혁적 분위기 속에서 실천 활동에 대한 학문적 응답으로 등장한 민중사학은 근현대사에서 민중에 의한 변혁운동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을 민중에 의한 민족해방운동으로 규정하는 데서 그 실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⁸⁰ 민중사학의 내용과 방법론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지만, 민중과 민중의식의 형성, 발전 단계별 민중 구성을 해명하고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의 주체가 민중이고 그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⁸¹

북측에서 주체사상의 적용에 따른 진통은 1980 년대 초에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1972 년 조선사회과학자대회에서 양형섭 당 중앙 인민위원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역사학 분야의 과제로 “우리 력사에 대한 주체적 입장에서의 연구 심화” 등 네 가지를 제시한⁸² 때로부터 주체사상을 역사관으로 정립하는 데 10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⁸³ 1980 년 제 6 차 당대회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확인함으로써 주체사상은 역사 연구 방법과 이론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⁸⁴ 그에 따라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introduce North Korea to the world” 이때 온 박창곤과 이동삼 실장, 김경하 연구원은 군축 관련 학자였다.

⁸⁰ 이세영, 1988 앞의 논문, 88~89쪽; 이영호, 1994, 앞의 논문, 199쪽

⁸¹ 정용욱, 1989 「민중사관과 주체사관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 『한국민중론과 주체사상과의 대화』 풀빛, 21, 25쪽

⁸² 양형섭, 1988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주체사상의 형성 과정』 백두, 263~264쪽

⁸³ 도면희, 2003 「북한의 한국사 시대구분론」 『북측의 역사 만들기』 푸른역사, 72쪽

⁸⁴ 박태균, 1994 「북한 역사학의 전개와 역사인식」 『한국사』 23, 한길사, 305쪽

역사를 인식하고 서술하는 이론이 제시되고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⁸⁵ 북측식의 독특한 역사해석이 체계화되었다. 주체사관에 따른 연구 성과가 속속 출간되었고, 조선사 체계는 1975 년 12 월 김정일 비서의 제안에 따라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체계화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된 『조선전사』 33 권 발간을(1982 년) 통해 확립되었다. 이어 부문사 집필에 착수하여 1990 년에 60 권으로 완간하였다. 1980 년대는 한편으로 주체사관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입각한 통사와 부문사 같은 대규모 집필 사업을 통하여 이를 확고하게 다진 시기였다.

3.2. 유럽과 미국에서의 재회

3.2.1. 부쿠레슈티의 국제역사학회의(ICHS)

남북 역사학자들은 1980 년 8 월 10 일에서 17 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제 15 차 국제역사학회 학술회의에서 7 년 만에 다시 만났다. 국제역사학회는 1926 년 제네바에서 결성된 세계 역사학자들의 비정부 기구로, 1970 년 8 월 15 일 제 13 차 모스크바총회에서 남북측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 회의에 조의설과 김석형이 대표로 참석하였다.⁸⁶

70 개국에서 1,500 명 정도가 참가한 부쿠레슈티 학술회의에 남측에서는 전해종 국제역사학회의 한국위원장을 단장으로 12 명이, 북측에서는 김석형 등 5 명이 처음으로 참가하였다.⁸⁷ 루마니아와 북측은 1948 년 11 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돈독한 관계를

⁸⁵ 김석형, 1980 「주체의 깃발 아래 개화 발전한 우리나라 역사과학」 『력사과학』 4호; 허종호, 1981 「주체의 력사관 연구의 몇 가지 문제」 『력사과학』 4호; 전영률, 198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광스러운 당 중앙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나라 역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하는 데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 『력사과학』 4호

⁸⁶ 조의설, 1970 「학계 동향: 국제역사학회의 한국위원회」 『서양사론』 11; 유홍렬, 1981 윗 논문, 103쪽

⁸⁷ 남측에서는 전해종 위원장을 비롯하여 유홍렬(인하대), 고병익(전 서울대), 이원순(서울대), 홍치모(충신대), 오인석(서울대), 윤세철(서울대), 윤병석(인하대), 유원동(숙대), 황원구(연세대), 박성봉(경희대), 박성수(송의여전) 교수가 참가했다. 유홍렬은 북측 참가자를 김석형과 김종혁, 전종덕(Jen Jong Dok), 주연찬(Ju Yon Chan) 4명이라 하였고, 고병익은 5명이라고 하였다(고병익, 1985 「부쿠레시티 일기」 『선비와 지식인』 문음

유지하였으나 남측 대표단은 비수교국을 방문하느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개회 후 5 일째에야 겨우 도착하였다.

남북 발표자의 명단과 발표 제목은 프로그램에 제시되었으나, 발표문은 학술회의 자료집 세 권에 수록되지 않았다.⁸⁸ 북측 학자로는 J(T). S. Lim 이 8 월 13 일 중세시대 분과에서 ‘봉건국가 고구려와 고분벽화 유산’ 영화를 上演하며 설명하였고, 16 일 근대사의 경제 세션에서 M. T. Hong 이 「조선에서 자본주의 관계의 발생」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⁸⁹ 남측의 유일한 발표자인 고병익은 16 일 ‘사회 속의 여성’ 세션에서 발표하였다. 고병익은 현재 한국 여성의 지위는 다른 현대국가와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전통적 가치관이나 요소가 많이 깔려 있다고 전제한 뒤 원초적으로 母系, 母權의 흔적을 지녀왔고, 고려시대까지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지만 15 세기 유학이 성행한 이후 크게 하락하였다고 보고하여 관심을 끌었다. 북측 참가자들도 이 세션에 청중으로 참가하였다. 북측 전종덕은 북측에서는 해방 후 여자가 남자와 완전히 동등한 권한을 획득하여 선거와 정치활동에 참가하여 20% 정도는 여자가 선출되고, 어머니들은 하루 6 시간만 노동해도 임금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보고하였다.⁹⁰ 남북의 실정이 보고되고, 간접적인 토론도 이루어진 셈이다.

전해종 단장은 학술회의의 성과로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공산권 국가의 학술회에 참가한 점과 세계학계의 동향을 살필 수 있었던 점을 들었다.⁹¹ 그밖에 유홍렬과 김석형의 만남은

사, 200~203쪽).

⁸⁸ COMITÉ INTERNATIONAL DES SCIENCES HISTORIQUES, 1980 『RAPPORTSI. GRANDS THÈMES et MÉTHODOLOGIE』, 『RAPPORTSII. SECTION CHRONOLOGIQUE』, 『RAPPORTSIII. ORGANISMES INTERNATIONAUX AFFILIÉS et COMMISSIONS INTERNES』 EDITURA ACADEMIEI REPUBLICII SOCIALISTE ROMÂNIA

⁸⁹ 유홍렬, 1981 앞의 논문, 122~123쪽. 그는 T. S. Lim이 발표하기로 프로그램에 적혀 있고, 김석형에게서 그가 발표했다고 들었다고 기술했으나(122쪽), 전해종은 발표자 2명이 오지 않았고 논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였다(동아일보, 1980. 9. 1. “루마니아 국제역사학대회 남북 학자 한자리에”).

⁹⁰ 고병익, 1985 앞의 글, 204~207쪽

⁹¹ 동아일보, 1980. 9. 1. “루마니아 국제역사학대회 남북 학자 한자리에”

남북 역사학 교류에서 인상적인 사건이었다. 김석형은 유홍렬의 경성제대 5년 후배이다. 유 교수는 助手로 있을 때 입학한 김석형과 각별한 친교를 맺었고, 1946년 봄 경성사범대학에서 경성대학으로 옮기면서 양정중학교 교사이던 김석형을 자신의 후임 교수가 되도록 하였다. 유 교수는 월북한 대학 동창들의 안부를 물었고, 김석형의 모친과 동생 및 동창들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김석형은 2남 2녀를 두었고, 막내 아들이 김일성대학 역사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하였다. 헤어지면서 유 교수는 강주진의 『한국과 소련』(中央出版, 1979)을 주었고, 김석형도 잠시 후 고구려 고분벽화 천연색 사진첩과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국사개요』를 기증하였다. 남측 대표들도 북측 학자 4명과 인사를 나누었다.⁹²

3.2.2. 워싱턴 D.C.의 아시아학회 중부대서양지역협의회(MARAAS) 학술회의

1985년 10월 27일 오후 남북 역사학자들이 처음으로 같은 패널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아시아학회 중부대서양지역협의회(Mid-Atlantic Region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개최한 제 14회 연례학술회의의 특별 패널에 남북미 학자가 참가한 것이다. 아시아학회는 1941년 잡지 『Far Eastern Quarterly』를 발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데, 1977년 학술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산하에 중부대서양지역협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지역 협의회가 있다.

패널의 주제는 ‘한국의 역사 편찬-실적과 과제’였으며,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학 교수가 사회를 보고 3국에서 1명씩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남북 학자의 발표 논문은 아래와 같다.

이기백(한림대 교수), 현대의 한국사학

최진혁(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북측에서의 이조시기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대하여⁹³

⁹² 유홍렬, 1981 「국제역사학회의 참석 보고」 『사학연구』 32, 116~123쪽

⁹³ 조선일보, 1985. 10. 29 “남-북 역사학자 함께 참석” 미국측에서는 게리 레디야드 교수(컬럼비아대)가 「외국인과 한국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중앙일보에서는 최진혁의 직함을 역사연구소장이라고 하였다(1985).

이 교수는 “한국 사학계는 해방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신민족주의사학이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 역사학의 주제가 인간중심의 역사학이며 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련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진혁 실장의 발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고병익 교수(한림대)가 “북측의 발표자가 조선 근대사에 국한해 발표하여 전반적인 한국사의 연구 상황을 소개하지 않았다”거나⁹⁴ 극단적 민족주의가 史實을 왜곡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며 “史實에 대한 논리적 해석 없이 일반화하는 가운데서 공통점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⁹⁵ 한 것으로 보아 주로 근대사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인 김창일 수석연구원은 1984 년에 발견돼 85 년에 발굴하기 시작한 고구려 유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최영호 교수(하와이대)는 비교적 나이가 젊은 그의 학문이 깊은 것 같았지만, 북측 학자들이 고조선의 영토 문제와 민족 기원의 문제 등에 있어서 검증되기 힘든 자료와 이론으로 토론에 임한 것을 예로 들며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이나 문제의 착안점 등에서는 남북측 학자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북쪽의 이론에는 민족주의가 과대하게 동원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⁹⁶ 그리고 그는 남북의 학문 교류를 위해 판문점에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기백 교수는 보충 발표에서 한국에서처럼 자유로운 학자들의 논쟁이 쌓일 때 한국 역사 연구는 진척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남북측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⁹⁷ 패널은 2 시간 40 분

10. 25 “美, 북한 학자 3명에 첫 비자 발급”)

⁹⁴ 동아일보, 1985. 10. 28 “남북한 역사학자 한자리에”

⁹⁵ 중앙일보 1985. 10. 29. “남북한 학자 참가 미 아주학회 학술회의”

⁹⁶ The Korea Times Hawaii(한국일보 하와이), 1985. 11. 4 “알로하 살롱: 최영호 교수”

⁹⁷ 동아일보, 1985. 10. 28 “남북한 역사학자 한자리에”

동안 진행되었다.⁹⁸

이전에도 남북 역사학자들이 만났지만 대규모 학술회의에서 각자의 관심 분야 논문을 발표하는 형태였지 특별히 별도의 패넬을 구성하고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여 발표하고 토론한 것은 처음이다. 그런 면에서 교류다운 교류, 깊이 있는 교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북측 학자의 미국 방문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 일 비자 발급 사실을 발표하면서 비자 발급이 미국의 북측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그들은 국가대표가 아니라 학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인 만큼 정치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⁹⁹

북측 학자들은 학회를 마치고 바로 출국했다. 그들은 외교관이나 올림픽 관계자가 아닌 북측 사람으로서는 사상 처음 미국을 방문한 사례였다.¹⁰⁰ 첫 번째 미국을 방문한 북측 민간인이 역사학자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단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최진혁은 본명이 최상순이며 1935 년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출생하였으므로 당시 50 세였다. 그는 2000 년대 남북 학술 교류가 빈번할 때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갖고 북측 단장으로 자주 참여하였다.

외무부는 이 사건에 우려를 표명했다. 외무부는 북측 학자의 미국 방문에 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미국과 협의해 왔으며, “한미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인의 미국 입국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북한 학자들이 학회 참석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미측이 철저히 규제한다는 데 양해했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¹⁰¹ 남측의 견제는 최진혁 일행이 4 일만에 미국을 떠나고 교민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막는 데 성공했지만, 그 후 북측 학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지는 못하였다.

⁹⁸ 조선일보, 1985. 10. 29 “남-북 역사학자 함께 참석”

⁹⁹ 한국일보, 1985. 10. 25 “미, 북한 학자에 비자 발급”

¹⁰⁰ United Press International, 1985. 10. 24. 기사의 제목은 없음.

¹⁰¹ 중앙일보, 1985. 10. 25 “미 입국 북한 학자 다른 활동을 규제 -미, 외무부에 약속”; 한국일보, 1985. 10. 25 “북한 학자 입국 선례 안 되도록 - 외무부 논평”

북측 학자의 방미는 1984 년부터 본격화한 북측 외교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북측의 삼자회담 제안에 미국은 남북 사이의 직접 대화를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였다. 북측은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제안하고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고 합영법을 제정하여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였다.¹⁰² 조지워싱턴대학 김영진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북측 학자의 방미는 남북대화의 진전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평가를 보여준 것이며 이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조치였다.¹⁰³

4. 맺음말

냉전체제 전반기가 끝나고 데탕트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 역사학자들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우연히 발견된 다까마쓰고분 실사에 남북 학자들이 초청받아 유적을 답사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세계 역사학계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대방의 역사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동양학자대회에 남북 학자들이 참가하여 대면하는 기회를 가졌다. 냉전후반기에 접어든 뒤에도 남북이 공세적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남북대화를 추진한 1980 년대 초중반에 남북 역사학자들은 국제역사학회의에서 다시 만났고, 마침내 미국에서 남북미 3 국 역사학자가 단일 주제를 내걸고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수준으로 진전되었다. 국제 학회 동시 참가는 참가자가 각자 발표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 학술회의는 주제를 미리 정하고 발표와 토론을 한 첫 번째 만남이었다. 세계 정세와 관련해 볼 때 남북 역사학 교류는 데탕트시기에 시작되어 냉전 후반부에는 일단 진전된 형태로 이어졌으며, 냉전 종식기에 이르러 더욱 빈번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졌다.

¹⁰² Young Whan Kihl, 1986, APRIL 「North Korea's New Pragmatism」 『Current History』 Vol. 85, No.

510, The Western Pacific, 164-167쪽

¹⁰³ 경향신문, 1985. 10. 25 “미·북한 관계 확대 가능성”



국제 사회 다극화 시대의 글로벌 코리아학

박노자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오솔로대



K-pop drives boom in Korean language lessons
by Matt Pickles
BBC News global education
11 July 2018

최근 20여년간 한국 (남한) 대중 문화 인기 상승 등의 이유로 세계적으로 한국/조선어 학습 열풍이 일어난다. 언어 학습 앱인 듀어링고에 의하면 지금도 한국/조선어 학습자들에 세계적으로 550만 명이 이른다.



미국의 4년제 대학들에서는 한국/조선어 학습자들의 수는 2만명 이상 된다. 언어 학습과 함께 학술 분야로서의 코리아학도 꾸준히 성장해, 이제 구미권 등 여러 지역의 대학에서는 중국, 일본학과 비교할 만한 주류적 위치를 점하게 됐다.
(사진: 2025년 제32차 유럽코리아학학술회의, 에딘버그)



Asian Studies
Volume 44, Number 2
July 2022
ISSN 1752-0487
Editorial Board
Editor: David K. Wyatt
Editorial Board:
China and Inner Asia
Michael H. Harkin
South Asia
Michael H. Harkin
Southeast Asia
Michael H. Harkin
East Asia
Michael H. Harkin

Raising the Korean Imaginary: Realization and Gender in South Korea
Author: Yoon Gyeong-yeon
Address: New York, NY
\$45.00
\$15.00

Purifying Blood: Scientific Surveys and Medical Pedagogies of "Mixed Blood" Koreans
Author: Yoon Gyeong-yeon
Address: New York, NY
\$45.00
\$15.00

Eggs and Sperm from Others: Reproduction and Gendered Realization in South Korea
Author: Yoon Gyeong-yeon
Address: New York, NY
\$45.00
\$15.00

Erased and Neglected: Invisible Gendered Realization of "Foreign Women"
Author: Yoon Gyeong-yeon
Address: New York, NY
\$45.00
\$15.00

Reconstructions of Extraordinary Koreans: "Multicultural Subjects" and the Realized Imaginary in Contemporary Korea
Author: Yoon Gyeong-yeon
Address: New York, NY
\$45.00
\$15.00

The "Mixed Korean" Matriarch: The Collective Memory of Los Angeles 1992 in South Korea
Author: Yoon Gyeong-yeon
Address: New York, NY
\$45.00
\$15.00

이와 연계된 문제는 구미권과 한국(남한) 등 **학계 언어의 실질적 «일색화»**다. 다국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아닌 언어로 쓰인 학술 성과는 서방 학계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고 참고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자가 아닌 비영어권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영어로 된 학술 성과들은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코리아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성과들은 그 대중성을 상실하고 학계와 일반인 사이의 괴리만 커져 간다.



그 다음,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지역적 격차**, 즉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불균형 복합 발전에의 경향은 코리아학에서도 같은 지역 안에서 여러 나라 학자 사이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같은 유럽 지역이라 해도 대학 교원들의 명목 임금은 동유럽에서 북유럽보다 3-4배 낮은데다, 한국(남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등이 어려워 연구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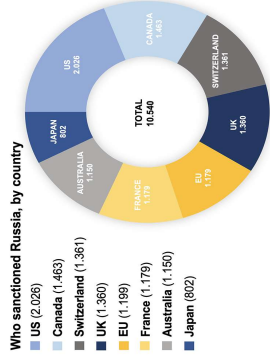


서방 학계의 일원이거나 다름이 없는 한국(남한)의 코리아학 학계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국(남한) 학자들로서 한국어 논문 집필은 거의 «자해 행위»에 가깝다.** 해외/영문 학술지에 실리는 영어 논문이야말로 가장 높은 평가를 무조건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지식의 공공성과 대중성은 상실돼 가고, 학자들은 대중과 거리 면 «전문 기술인»으로 전락된다.

SCD 참고문헌 언어별 분포(비율)

언어	학술논문 수	학술논문 비율
영어	4,428,485	89.3%
한국어	509,555	10.3%
일본어	14,910	0.3%
중국어	3,775	0.08%
독일어	1,560	0.03%
기타	1,031	0.02%
프랑스어	890	0.02%
계	4,960,206	100.0%

이와 동시에 미국 패권의 쇠락, 다국화 시대의 도래를 수반하는 각종의 **지정학적 대립, 갈등, 무장 충돌** 등은 코리아학들에게 포함한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게 새로운 시련을 의미한다. 일례로, 2022년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가동된 뒤로는 러시아의 코리아학 전공자들은 서방 학계의 학술 활동에서 거의 완전하게 소외됐다. 서방 학자들도 러시아의 아카이드 등을 접근할 수 없어 **양측의 피해**가 심각하다.





예컨대 1980-90년대에 유행했던 근대 빈민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자들은 극소수만 중사하게 됐다. 급진 운동, 독립 운동의 역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고 시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계 연구 동향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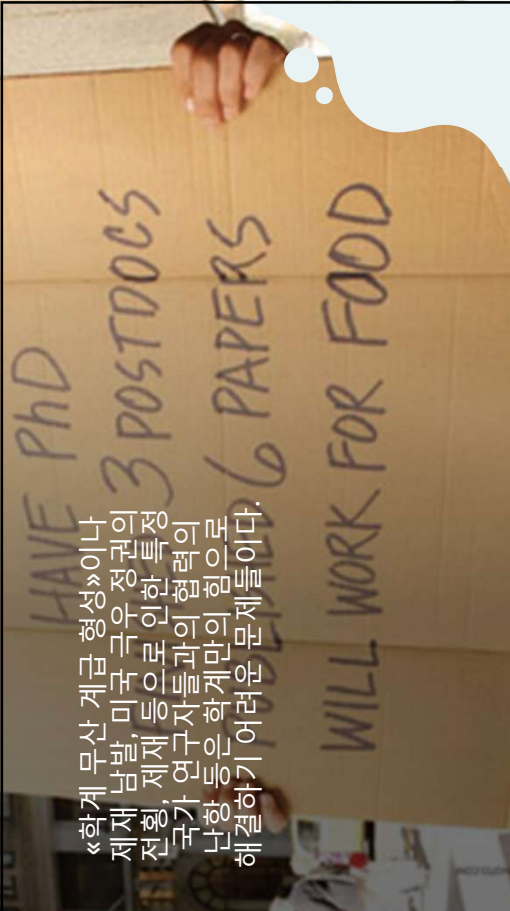
장군, 후상, 속, 순국 80주기

우원식 의원
공병도기념사업회 이사

연구 지원 기관이나 (주로 중산층 출신의) 많은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정치성》이라는 부담이 없는 주제들은 가장 접근하기가 손쉽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연구 풍토는 균형을 잃게 된다.

Korean culture read through the Korean Wave
한류로 읽는 한국 문화

«학계 무산 계급 형성»이나 제재 남발, 미국 극우 정권의 전횡, 제재 등으로 인한 특정 국가 연구자들과의 협력의 난항 등은 학계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HAVE PHD
3 POSTDOCS
6 PAPERS
WILL WORK FOR FOOD

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다양한 계급, 계층의 출신들이 진입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학술 저술이 가능하고, 지적학적 정제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학계 만들어 다함께 기여할 길이 있을 것이다.



몽골 코리아학의 동향 분석

Sainbilegt. D (몽골국립대 교수)

A Study on the Trends of Korean Studies in Mongolia

Sainbilegt.D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Professor)

주제어 : 몽골, 고려학, 교육 동향, 연구 동향.

1. '코리아학'의 정의와 범위

먼저 코리아학이 학문적으로 성립되었는지,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코리아학(Korean Studies)은 '지역학 (Area Studies)'의 연구 방법론에 의해 연구 분석되는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ncyclopaedia Britannica)에서 지역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문화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정치과학과 역사, 사회, 민속학과 지리학, 언어와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¹. 각 지역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면서 자신만의 통합된 특성을 이끌어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언어와 문화, 정치와 경제, 사회, 자연 조건 등 무수한 변수가 작용된다. 그러니 각 지역 특성이나 그 지역 문제는 단일적인 이론과 연구 방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

‘코리아학’이란 용어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 “1899년 1월 9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 논설에서 언급된 ‘본국학 (本國學)’이라는 용어를 현대 고려학이 시작된 모태로 꼽는다. 그 이후 ‘본국학’이라는 용어는 Korea의 역사적인 변화와 함께, 포괄하는 연구 대상과 성격 등이 조금씩 바뀌면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조선학 (造船學)’, 광복 이후에는 ‘국학 (國學)’,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학 (韓國學)’이라는 용어로 지속적인 변천을 겪게 된다”(김경일 2003; 임현지, 정일준 2012; 전성운 2010; 황폐강 1982).

몽골에서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이라는 용어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 가능하나 1990년 이후부터 교류협력이 많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다. 물론 이 용어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앞으로 ‘한국학 (Хан улс судлал)’과 ‘조선학 (Жусон судлал)’라는 두 개의 용어로 세분화되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번 논문에서 이 두 나라를 아우를 수 있는 ‘코리아학 (Korean studies)’ 단어를 활용했다.

‘코리아학’의 연구 범위를 살펴보면 인문·사회학을 중심으로 설정된 내용이 많다². 송민선

¹ “Area studies, multidisciplinary social research focusing on specific geographic regions or culturally defined areas. The largest scholarly communities in this respect focus on what are loosely defined as Asian, African, Latin American, or Middle Eastern studies, together with a variety of subfields (Southeast Asian studies, Caribbean studies, etc.). Area-studies programs typically draw on disciplines such as political science, history, sociology, ethnology, geography, linguistics, literature, and cultural studies.” (https://www.britannica.com/)

² **Korean studies**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focuses on the study of Korea, which includes the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diasporic Korean populations. Areas commonly included under this rubric include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literature, Korean art, Korean music,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Korean sociology and anthropology, Korean politics, Korean economics, Korean folklore, Korean ethnomusicology and increasingly study of Korean popular culture. It may be compared to other area studies disciplines, such as American studies and Chinese studies. Korean studies is sometimes included within a

(2015)이 “한국학은 용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광범위한 개념을 비롯해 다른 학문과 융·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특성 때문에 ‘한국학’이라는 명칭으로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된 지금까지 학문적 토대를 다지고 세계 속에서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체성(正體性) 모색의 노력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 및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학 관련 자료 현황과 내용을 조사한다거나, 해외 한국학 관련 교육 기관의 커리큘럼을 분석한다거나, ‘한국학’에 내포된 ‘한국학’이라는 의미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찰한다거나, 역사적 시점 별로 두드러진 연구 성과를 보였던 주요 한국학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체성 모색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고 하여 학문 분야의 하나로 정착되어 오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방대한 한국학 관련 학술 논문 데이터에 대해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적인 방법을 적용해 학문적 특징과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박이문(1982), 황폐강(1982) 등 여러 연구자들이 한국학의 범위를 개념적으로 정의함에 있어 ‘한국과 관련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 진행에 있어서의 조작적 정의 단계에서는 자연과학 분야는 배제하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분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은 국내외 고려학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조사함으로써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송민선(20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에서** 중심 분야로 언급된 분야는 대체로 학문 분야 관점에서는 성리학과 실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 사상 철학과 문학 분야를 포함하는 군집들이, 시대적인 관점에서는 조선 후기에서 근대시기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타났으며, 일부 의견으로는 지리적인 관점에서 분단 상황을 반영한 한반도와 북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경제나 민주화와 관련된 군집들이 대체로 한국학 분야 연구자들의 중심 연구 분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분단 상태에 따른 남북한 관계나 정치 경제에 관련된 군집들이 중심 분야로 다수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 한류 관련 군집과 일부 보이는 유교문화권 관련 키워드도 중심이 될 것 같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의 경우, 포함하는 범주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보는 한국학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지역학 차원에서 한국에 관한 학문들이거나 한국어학에 치우친 경우가 많아, 향후 후속 연구 수행 시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학의 특성 및 ‘한국’이라는 개념을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이들 각 분과학문을 융합한 고려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그 동안 서양 고려학을 통해 달성하지 못한 학문적 체계화, 나아가 고려학의 세계화라는 과제를 ‘동아시아 한국학’을 통해 이뤄야 한다는 관점도 있었다(이영호 2006).

결론적으로 미국학이나 중국학, 러시아학 등 대국들과 직접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어도 코리아학이나 몽골학이 지역학의 일부로 그 학문적 정체성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들 나라의 내재적이고 총체적인 특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연구에서 현대 몽골에서의 코리아학 동향을 한국을 중심으로 이뤄진 교육 및 연구 동향 분석이다. 사실 몽골에서의 코리아학은 몽골 여러 교육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언어와 문화, 민속학과 문학, 역사와 정치와 법학, 국제관계학, 지리학과 관광학 또는 정보통신이나 행정학, 예술과 기초과학 및 의과학 등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학문들을 뜻한다. 하오나 본고에서 그 모든 학문 분야를 일일이 다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대학교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교육 및 연구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고려학의 동향

2.1. 연구 동향

몽골과 코리아반도 국가들은 역사의 진전에 따라 끊임없이 사람들의 왕래와 문물의 교류가 있었으나 명나라나 청나라 통치 시대부터 1900년도까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그 동안 몽골은 200년간의 청조 강점기와 1921-1980년까지의 소련의 억압과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던

broader regional area of focus including "East Asian studies". The term Korean studies first began to be used in the 1940s, but did not attain widespread currency until South Korea rose to economic prominence in the 1970s. In 199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Korea Foundation to promote Korean studies around the world. (https://en.wikipedia.org/wiki/Korean_studies)

반면에 코리아반도는 1910-1945년까지의 일본 강점기와 미소 양군에 의한 분단점령, 양 진영간의 분리 대립 투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다.

먼저 국가 기원에 대한 연구로는 주채혁(1996)과 베. 수미야바타르(1975)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채혁(1996)은 90년 이래로 수집된 관계 구비전승 사료와 문헌사료 및 고올리 성읍터 답사, 발굴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몽골과 Korea의 기원 문제에 관해서 ‘몽(蒙) 고올리’와 ‘맥(貊) 고올리’로 집약되는 한 가설을 제시했다. 반면에 수미야바타르(1975)는 주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하여 음성적, 의미적 유사성에 기대어 어휘비교를 통해 Korea와 몽골의 공통 조상이 중앙아시아에 기원한다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강신, 1996:312).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세 교류 관계**, 그 중 ‘몽골과 고려의 교류’를 제일 많이 다뤄 왔다. 그 당시 몽골과 Korea 사이에 이뤄진 문화적 교류의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에 나오는데, 995년에 유학생 10명을 거란에 파견하여 몽골어를 배우도록 했다는 기록이다. 고려 신종 때 예수게이의 맏아들 테무진(金)이 인근의 군소 족속을 정복하고 내외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세력을 넓혀 갔다. 테무진은 1206년에 쿠빌타이라는 대회에서 대칸으로 추대되어 ‘칭기스칸’이라고 칭해졌고 그 뒤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대 몽골제국의 황제가 되었다³.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의 암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몽골 장군 살리타이가 고종 18년(1231)에 제 1차 침입을 하였다. 이로부터 몽골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려에 영향을 끼쳤는데 원나라가 멸망하는 1368년까지 약 137년간 많은 문화교류가 이뤄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몽골과 고려 시대 연구의 개척자인 고병익(1949)은 “원대 사회와 이슬람 교도”, “원대의 법제(1953)”, “여대정동행성의 연구(1961)”, “고려 충선왕의 원무종 옹립(1962)”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몽원사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논문들이다. 이 외에 김상기(1964)의 “이익재의 재원, 생애에 대하여”, 이용범(1962, 1964)의 기항후의 책립 문제와 원대 라마교의 고려 전래에 대한 논문, 김종원(1969)의 “원대 몽고 국자감과 태학에 대하여”라는 중요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몽골에서의 중세 교류 관련 연구로는 베.수미야바타르(1978), 베. 수미야바타르(1992), 베.수미야바타르(1996), 베. 하과(1995), 체. 달라이(1998), 게. 에르덴치멕(1998)의 논문들이 있다. 베.수미야바타르(1978)에서 몽골 고대 부족에 대한 자료와 13-14 세기 몽골의 외교 문서들을 썩여진 언어와 문자체계를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그 당시 몽한 관련 200여개 문서 중 39개는 외교 관련 문서이고, 21개는 원 나라 황제와 장군들이 고려에 보낸 조서와 서신들임을 밝혔다. 베.수미야바타르(1992)는 중세 몽한 관련 문헌 자료를 정리하여 출간했으며 수미야바타르(1996)에서 고려를 중세 몽골 사료의 규장각(奎章閣)으로 보면서 경진 6년(1280) 10월에 원 나라에서 고려에 보내온 한 군법(軍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베. 하과(1995)는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 치우쳐 왔음을 지적하고 이 시기의 양국간의 관계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일대일 관계에서가 아니라 당시 형성되었던 몽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몽골제국과 고려, 원과 고려 사이의 포괄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보아야 하며 고려가 처해 있었던 당시의 국내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체. 달라이(1998)에서 기원전 400년쯤부터 ‘설령거스’이라는 명칭을 몽골인들이 사용해 왔고 독립, 자주국가 입장에서 양국은 서로 교류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고대 몽한 교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인 쿨데긴 비석의 한국관련 기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중세 몽한 교류를 몽골제국 시대(1206-1260), 원나라 시대(1260-1308)로 구분하였는데 그 당시 시대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칭기스 칸이 건국한 몽골제국은 고려와의 교류를 확대해 감에 따라 고려인이 몽골의 수도 하르허룸에 와서 몽골 유목 생활을 경험하며, 몽골 도시 건설에 참여했다. 이는 원나라 시대의 교류와는 성격이 다르다. 원나라 때 양국 교류는 어떤 면에서 중국과 고려의 교류로 변질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의 통치정책과 관계가 있다.” 게. 에르덴치멕(1998)은 원 나라와 고

³ 칭기스칸은 20 여년 만에 알렉산더대왕과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했던 면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 넓은 대제국을 건설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타임지는 20 세기를 마감하면서 칭기스칸을 지난 1000 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인물 ‘밀레니엄 맨’으로 뽑았다.

칭기스칸(1162-1227)	770 만 m5
알렉산더대왕(기원전 356-323)	348 만 m5
히틀러(1889-1945)	219 만 m5
나폴레옹(1769-1821)	115 만 m5

출처: 이 표는 김종래의 “밀레니엄맨 칭기스칸”을 참조.

려 왕실 간에 맺은 혼인 관계와 몽골 공주들에 대한 연구를 하여 학위논문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에 체.체렌도르지 박사의 “고대 한몽 관계사”가 출간되었는데 양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다.

현대 교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몇 개의 서책을 대표로 소개할 수 있다. 제.바트터르(1998)에 의하면, 1910년대 씌여진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미정의 번역 책이 몽골에서 발견되었는데, 인명, 지명, 도시 이름, 국명, 직책명 등 고유 명사를 중국식 발음을 따서 만주 문자로 표기했으며 나머지는 몽골 문자로 썼다. 그 내용은 일본에 불법 강점된 이후의 조선의 역사, 즉 양국간에 체결한 조약 및 조약 서명식에 참여한 일본인과 Korea인들의 역할과 활동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 책을 이어서 나온 소책자가 있는데 그것은 “망국의 눈물”이다. “망국의 눈물”에서는 조선이 어떻게 하면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서술했으며 바트터르 학자는 키릴 문자 번역문 뒤에 몽골 위구르 문자 원문과 라틴 전사를 첨부하여 출간하였다. 또 바트터르(2000)에서 1910-1930년대 몽·Korea 교류사를 다루었는데 그 내용을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두 나라가 위치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 특징 및 세력 균형, 지역 국가들의 역사적 이익 관계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후반부에서는 1910-1930년대 양국 교류에 관한 문서보관소 자료들을 정리해서 소개했다. 거기에는 당시 3천여 명의 조선인이 몽골 정부에 귀화를 청원하고 농사 허가를 요청한 자료, 몽골 정부가 기근에 처한 조선인들을 위해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문서, 김유식, 요우현, 김책 등 독립운동가들의 방몽에 대한 자료, 이태준 의사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었다. 동 저서 2권에서 남북한 분단 과정 및 몽골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교 또는 교류 증진을 다루었다. 따라서 몽골인민공화국의 6.25 참전, 그것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평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했으며 전후 이북의 상황이나 이북에서의 주체 사상형성 과정에 대하여 논증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신상균·하이상대(2003)의 저서이다. 이 책 내용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과 지역간의 협력관계의 주요인, 발전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몽골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력관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이익 관계와 관련시키는 것, 두만강 유역 지역 발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양국의 참여 의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의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교류 과정의 주방향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제시했다.

초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였던 권영순 대사는 1990년 수교 이전이나 이후에 벌어졌던 몽골과 한국의 정치 및 경제적인 상황을 상세하게 전개했으며 차후 공동학술 연구와 협력 관계의 틀을 마련하는데 공헌했다⁴. 윤순재(2000)는 한몽 민간 교류의 과정을 1기 탐색기(1978년 스포츠 교류에서-1990년 외교수립까지), 2기 준비기(1990년 3월 외교 수립후-1995년 직항로 개설까지), 3기 성장기(1995년 직항로 개설에서-1999년 김대중 대통령 방몽까지), 4기 확대기(1999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이후-현재) 나누었으며 향후 민간 교류에 대한 전망을 경제와 스포츠, 종교, 교육 및 학술 분야별로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과 한국의 교류가 다만 문헌 자료 조사로만 끝나지 않고 “몽골과 제주도의 돌하루방 비교연구”라든가, “몽골동부지역 한몽 합동 학술조사”로 확대되면서 한몽 학자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1990년 이후의 한국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기대한 만큼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연구 깊이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몽골과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학 연구는 잘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필자가 1990년부터~2007년까지 출간된 현지 한국어학과 관련된 논문과 교재와 저서 및 역서 수록 목록을 만들어 봤을 때 대소논문 100여편, 교재 28권, 저서와 역서가 30여권이 수록되었다. 지금은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한국언어학과 교육학, 역사와 고고학, 사회학, 문학과 예술, 문화와 민속학, 정치와 외교학, 경제와 경영학, 통번역학, 여러 학문 비교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학, 기초과학, 법학, 의학적으로도 그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 이뤄져 왔다⁵. 가령, 한국과 몽골의 비교 역사학이나 기

⁴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2년 간 몽골에서 근무하면서 과거 30년간의 외교관 생활 중에 다른 나라에서 느껴보지 못한 친근감이랄까 몽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몽골을 떠나기 전에 몽골 과학아카데미와 한국의 학자들을 연결하여 공동학술 조사단을 구성, 10개년 계획으로 동부 몽골지역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고고학자 손보기 교수님을 단장으로 한 10여명의 한국측 조사단은 해마다 동부 몽골지역을 답사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고구려 성터 유적을 발굴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⁵ 몽골국립대 자연과학 분야에서만 해도 10차례 이상의 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된 데에 60여 편의 학술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6개의 공동사업이 추진 중이다. (Battor. J 외, 2010).

타 한국 역사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 내용을 보려면 체.체렌도르지 (2021)을 참조할 수 있으며 몽골내에서 수행된 석박학위논문들의 동향을 사르네 (2024)⁶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필자가 2022년에 몽골과 한국에서 수행된 학위논문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록한 바가 있는데 수집한 논문들의 주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몽골에서 수행된 한국학 관련 학위 논문 (1999 년~2022 년)

구분	논문의 주요 내용	학위 논문수 (총 47)
한국어교육 (일반)	현황과 과제, 교육정책	석사 3 박사 1
한국어문교육 (특정)	발음과 어휘문법 교육: 자음 발음법,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교육, 말하기, 어휘 교육, 언어교육전략, 문학교육, 온라인 교육, 교원 재교육.	석사 11 박사 2
어문학 번역학	어문대조: 목적격, 속격조사, 종결어미, 동사, 속담, 관용어, 흥내내는 말, 수량사, 신체어, 시제와 상, 높임표현, 보조용언, 설화, 이중모음과 장모, 외래어, 감정표현의 인지언어학적인 접근, 언어문화와 사조의 특징을 비교대조한 논문들	석사 19 박사 7
	번역: 관용어 번역, 문화어, 몽골비사	
한국학 관련	지역학과 사회학: 한반도, 고려사, 양국 경제협력에 관한 논문들	석사 1 박사 3

<표 2> 한국에서 수행된 한국학 관련 학위 논문 (1999 년~2022 년)

구분	논문의 주요 내용	학위 논문수 (총 79)
한국어교육 연구 (일반)	한국어와 한국학 현황과 과제, 연구 동향, 교육정책	석사 3 박사 1

가령, 생물과학(추위에 강한 식물이나 동물 연구), 만년설과 얼음물 연구, 기후학(아시아 지대 기후 변화), 광물학 연구(석탄), 고고학, 인류학, 고생물학, 비교정치학, 비교역사학, 사회학, 한국어와 한국학 관련 연구들이다.

⁶ 사르네 (2024)에서 1990-2021 년에 몽골에서 수행된 109 개의 석사논문과 1995-2023 년에 이뤄진 16 개의 박사학위논문을 수록 분류하여 쟁점 사항을 제시했다.

한국어교육 (특정)	발음(음운)교육: 모음 교정, 이중모음, 초성과 중성, 폐쇄음, 자음 연쇄, 장애음, 문말 억양 인식, 단모음 인지와 산출 향상	석사 9 박사 1
	문법 교육: 격조사, 조사 유의어, 신체어, 관용어, 높임법, 접속문, 연어, 속담, 어휘 문법 오류, 관형사형 어미	석사 15 박사 2
	기능 교육: 쓰기(석 4, 박 2), 말하기(박 2), 읽기(석 2, 박 1), 듣기(석 1)	석사 7 박사 5
	교육과정 (석 2, 박 1), 교재 (석 4), 평가 (석 1), 숙달도 (석 1)	석사 8 박사 1
어문학과 번역학	어문대조: 조사, 속담, 단위명사, 피동과 사동, 격조사, 문법 용어, 도움토씨, 특수조사, 부정문, 주격 및 호격조사, 분류사, 보조용언, 형용사, 사전 편찬, 동사 파생접미사, 높임 어휘, 호칭어, 관용어, 신체어	석사 21 박사 3
	번역: 문장 기계 번역, 동사 기계 번역	
한국문학 교육과 문화 교육	설화를 활용한 문학 교육 , 재한 몽골학교 중고등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석사 1 박사 2

<표 3>

한국에서 수행된 한국학 관련 학회지 논문 (1999 년~2022 년)

구분	논문의 주요 내용	학회 논문수 (총 55)
한국어교육 (일반)	한국어와 한국학 현황과 과제, 연구 동향, 교육정책	논문 15
한국어교육 (특정)	발음(음운)교육: 파열음 발음 교육	논문 1
	문법 교육: 문법 교육의 실태, 격조사, 유의어 교육,	논문 4
	기능 교육: 텍스트 기능과 수용, 말하기 교육, 쓰기 능력, 쓰기 오류	논문 4
	대학교 교육과정 설계, 통번역 교육과정, 문법 기반 교재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분석 , 교육과정 인식과 만족도, 토픽 쓰기 평가	논문 11

어문학과 번역학	어문대조: 격조사, 수량사, 의문사, 옴라우트, 청유문, 계통적 위치, 격표현과 특수 조사, 동사 상, 기초 어휘, 사전 편찬	논문 10
	번역: 번역 오류	
한국문학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 문학교육 현황, 대학교 문학교육, 고전문학, 속담을 통한 문화 교육, 문화교육 요소, 문화인식	논문 10

상술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몽골과 한국에서 수행된 논문들 중 발음과 문법교육, 특히 양언어를 대조한 논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기능 교육 중 말하기와 듣기, 평가 교육, 한국어 교원(외국인)에 대한 연구가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교육학 말고 한국 역사나 한국 문학과 문화, 한국 정치학, 한국 경제학, 한국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 논문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언어학의 일환으로 학습자의 인지과 인식, 기계 기술을 활용한 논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인과 몽골인들 또는 여러명이 합동 연구를 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한국에서 수행된 논문들의 대부분이 몽골에 거주하는 몽골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는 집단 대상자를 찾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국 유학 희망생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한 동안은 한국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될 것 같으니 이에 대한 조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단행본과 사업연구 성과물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몽골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수만 하더라도 40여종에 이르며, 여러 단행본과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 및 출간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잘 다루지 못했으나 요즘 들어 학술 논문보다 여러가지 콘텐츠, 뉴스 컬럼, podcast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인터넷과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상시에 보급 및 확산되고 있다. 한몽 신 세대 청년들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고 본다.

2.2. 교육 동향

첫째. 교육기관

몽골에서의 Korean Language 교육은 1990년 3월 26일에 한국과 몽골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외무부 산하 동양학 연구소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학교 한국어학 교육사를 살펴보면 몽골국립종합대학교(1991), 국립외국어대학교(사립 인문대학교로 개명; 1992), 국립울란바타르의대학교 (시립대학교로 전환; 1992) 등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었고, 1993년부터 사립국제울란바타르대학(1995년 대학 설립인가 취득)에서 한국어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 어르헝 사립대학교에도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한국어학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다.

2000년도까지는 상술한 몇몇 대학교에서만 한국어학을 가르쳐 왔으나 2000년 이후로 국립사범대학교(국립교육대학교로 개명; 2000), 세루르크대학(2001), 한몽기술대학(2001),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2002), 지방에서는 다르항대학(2004)등의 여러 대학교에서 한국어학 전공 및 부전공으로 가르침으로써 정규 교육기관의 한국어학 학습자 수가 상당량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2010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다. 즉 한국어학 교육을 하는 학과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으면서 학생수와 교원수가 꽤 줄어들었다. 현재 2019년을 기준으로 18개의 대학교에서 전공 및 교양(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는 10여년전에 25개 대학교에서 한국어학을 가르쳤던 것과 비교하면 그 수가 줄어든 것이다.

둘째. 교원

현지 한국어 교원들의 대부분은 한국 유학 경험이 있고, 관련 전공을 한 교원들이 많지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적다.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수가 꽤 되지만 지속적인 교원양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는 1991년부터 계속 증가해 왔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습자 수가 전공 및 교양과목 수강생을 합쳐 총 3201 여명이다. 근대 교양(선택)과목 한국어 수강생 수가 (2260) 한국어학 전공생 수를 (941) 훨씬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현지 초·중·고등 통합 28개 학교에서 총 4717 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있고, 세종학당 3 곳에서 매년 1600 여명의 수강생들이 한국어문화 단기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즉, 2018-2019년을 기준으로 약 10,000 명이 몽골내에서, 8000 여명이 한국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어학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초급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한국내 체류자와 유학생 (2024 년 기준)

내용	통계수	연도 기준
한국내 체류자	57,093 명	2024 년 12 월
한국내 유학생	(남) 6565 명 (여) 10,090 명	2024 년 12 월
결혼 이민자	2706 명	2024 년 12 월

몽골에서의 한국어학 교육과정은 기관 유형에 따라 1) 대학교 한국어학 전공 교육과정, 2) 외국어 초중고 일반 한국어 교육과정, 3) 세종학당 일반 한국어문화 교육과정, 4) 사설 학원 일반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56

1. 2000년대 일부 대학교에서 내부구조조정이 있었다. 몽골국립대학교의 경우 국제관계 대학교가 외국어문화대학으로 변경되면서 언어를 기초로 한 국제관계 교육과정이 언어를 기초로 한 지역학, 즉 ‘한국학 교육과정 (2002)’으로 바뀌었다.
2. 몽골 정부 2010년 제15령에 의해 국립대학교간 통합 또는 일부 학교 인허가 무효화되면서 국립대학교수가 42개에서 16개로 줄어들었다.
3. 몽골국 고등교육 진흥 정책에 따라 몽골 교육과학부 장관 2014년 제78령에 의해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표준 전공 분류가 바뀌면서 대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다. 이것은 2013년 유네스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개정권고에 따른 것인데 많은 대학교들이 소위 리버럴아츠 (Liberal Arts) 대학교관을 수용하여 대학교 1학년 때는 인문학과 사회학, 자연 기초과목을 포함한 교양과목 30-36학점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턴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 결과, 그전 교육과정 총이수 학점의 70% 이상을 전공 과목들이 차지했다면 지금은 전공과목들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교 학사학위 이수학점이 120학점이라면 60학점이 전공과목이 된다는 뜻이다).

현재 대학교 한국어학 교육과정 구성은 크게 일반 한국어를 기초로 한 언어와 교육학, 지역학과의 융합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 1) 일반 한국어 + 언어학 융합 교육과정
- 2) 일반 한국어 + 통번역학 융합교육과정
- 3) 일반 한국어 + 지역학 융합교육과정**
- 4) 일반 한국어 + 교육학 융합교육과정

이들 융합교육과정 중 ‘한국학’ 전공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급부터 중급 (일부대학교에서 고급까지)까지의 한국어 지식 및 기능교육에다 한국 역사와 문학, 정치와 경제, 한국 문화와 민속학 등 한국학 관련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다. 현재 몽골국립대학교와 사립국제온란바타르대학교에서만 이와 같은 ‘한국학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 교육과정의 의의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외적 요인:

- 1) 세계화, 언어문화간 교류, 지역 공동체 형성
- 2) 한국과 몽골 사회의 교류 발전의 가속화
- 3)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의 지원 확대

내적 요인:

- 1) 전공의 세분화
- 2) 학생들의 진로 문제 개선
- 3) 대학교 교육·연구의 질 향상

학습자들이 4년의 짧은 기간 내에 국내 노동 시장 요구에 부합한 수준급 언어와 지역학 지식을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어학’ 또는 ‘한국 지역학’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 현지 교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학문적 체계성과 내용 위계화를 위해 한국인 전문가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다섯째. 교재

한국어학 교재의 경우 지금까지 한국 대학교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들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 현지 교육 기관이나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재 개발을 한 결과, 한국에서 개발 교재의 번역서를 포함한 교재의 종류가 40 여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졌다. 특히 한-몽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한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6 권’ 과 스마트교실 활용을 위해 개발한 ‘몽골 초·중등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8 권’ 과 같은 학습 교재가 대학교와 초·중·고등 학교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반 한국어 교재들의 보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교육기관들이 온라인상에서 파일형태로 교재를 공유하며 사용하는 형편이다. 교재를 온라인으로 보급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학습자들이 복습하거나 습득하는 데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언어외의 지역학 학문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들의 경우 현지 교육과정 내용에 맞는 교재가 지극히 제한적이며, 교재 보급도 각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식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학 관련 지식 내용 개발과 전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부족하며, 연구진들의 협력도 요구되고 있다.

여섯째. 평가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또는 계획된 바에 따라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그 중 시험 (testing)과 측정 (measurement)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인다. 시험은 주로 테스트에 근거한 절차로서 등급 평가 테스트 (norm-referenced test, 절대평가 방식), 성취도 평가 테스트 (criterion-referenced test, 상대평가 방식)가 있다. 이런 시험 및 테스트는 숙달도, 진단, 배치, 최종 성취 평가를 위해서 사용된다. 따라서 측정은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성적과 설문조사, 학습자에 대한 교사 채점, 또는 교사에 대한 학습자 채점 등 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는 각 교육기관 방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채점 방식이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한국어능력 시험을 (TOPIK) 위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곳도 교육 평가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해야지 교육 총평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위 내용을 중심으로 몽골내 한국학 교육의 주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몽골내 한국학 교육의 주요 동향 (1990 년 이후)

1990 년대 몽골 한국어 교육의 태동기	✓ 주요 대학교와 외국어 특수학교에 한국어 학과와 한국어 강좌가 개설됨 (대학교 5 개, 특수 외국어 학교 2 개 정도) ✓ 1994 년부터 첫 학부생들을 배출함
2000 년대 몽골 한국어 교육의 성장기	✓ 2000 년도에 들어서서 추가로 여러 대학교들 (2006 년 기준으로 21 개)과 일반 어학원 (31 개), 초중고 학교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2008 년 기준 10 개) ✓ 한몽, 몽한 사전이나 몽골인을 위한 대학교 한국어 교재들이 개발됨

2010년대 몽골 한국어 교육의 전환기 1	✓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대학교수가 줄어들어 전공생과 교원수도 감소 (2016년 기준 대학교수가 15개). 반면에 스마트교실 운영에 의해 외국어 특수학교와 일반 초중고 학교수가 증가세를 보임(2016년 기준 17개) ✓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생보다 교양과목생수가 증가하며 세종학당이나 일반 학원을 통해 배우는 학습자들이 늘어남 ✓ 현지 토픽 지원자수가 증가함 (2022년의 3차례 지원자수가 8781여명) ✓ 몽골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됨 ('몽골 초·중·고등학교를 위한 표준 한국어-초·중·고급')
2020년대 몽골 한국어 교육의 전환기 2	✓ 코로나 또는 4차산업 혁명 등의 영향으로 교육 환경과 교수 학습 방법과 교육 자료 형태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Hybrid 교육 등) ✓ 교육 현장을 재점검하여 이와 같은 변화를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결론

현대에 들어서 몽골에서의 코리아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 왔다. 그간 교육과 연구가 양질의 성과를 이루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관련 기관과 개인의 아낌없는 지원과 혜택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지 대학교 학위과정을 통해 유능하고 양국 언어문화를 이해하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배출되어 왔다. 특수외국어 학교나 초중고 학교들이 현지 청소년들의 어문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일조해 왔으며, 현지 세종학당들도 어문화를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지 교육기관을 통해 초급에서 고급 수준의 언어 교육이 제공됨과 동시에 k-pop, k-beauty, k-drama, k-food, k-game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보급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 환경의 변화와 기계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가령, 스마트 교실, 온라인 교육, 메타버스 교육 등.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고등 및 중등 표준 교재 (초급~고급)와 교사용 지침서,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현지 교육과정 개선과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한국교류재단이나 세종학당재단 등 기관에서 지원하는 'e-school', '현지 교원 컨설팅 프로그램'이 효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지역 토픽 시험과 기타 시험 운영에 의해 언어 평가 방법이 향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몽골과 코리아반도 두 국가 간의 교류협력이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그 변화·발전이 몽골내외 여러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교재나 교수진이 상당량 확보되었지만 질 높은 언어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며, 앞으로 코리아학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양성되어 체계적이면서 질 높은 코리아학 발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해 본다. 기회가 되면 몽골에서의 '코리아학 백서'가 출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Battor, J (1998), “'대한제국의 역사' 라는 소재의 원문 연구”.
 Battor, J (2000), “20세기 몽·한 교류(1910-1930)” 1, 2 권.
 Battor, J, Tsogbadrakh.M(2010), “몽골과 한국 과학교육분야 교류 협력”, MAGIKO 주최 한몽 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 Gerelchimeg, D, 신윤경 (2020), “몽골에서의 한국문학교육 방향에 대한 연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Vol. 2020 No7, 141~148.
- Dalai, Ch (1998), “고대 몽·한 교류”, 몽골과학 아카데미, 동북아연구센터.
- Dulmaa, B(2009), “한국어로 번역된 몽골 문학 개관”, 몽골국립대 국제관계대학 학술회의 논문집.
- Dulmaa, B (2013), “한국 문화 수업 내용과 교수방법”, “외국어문학” Journal 397 (17 호), 몽골국립학교 출판부.
- Monkhjargal, S (2005), “몽골에서의 한류 현상의 배경과 그 성격”,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Mend. N (2005), “몽골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개관”, 몽한 문학연구원, 제 2 세미나, 몽한 문학 교류 협회.
- Norovnyam, B (2003),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현황”, 2003 년 정부초청장학생출신 한국학 교수 초청세미나 논문집, 국제교육진흥원.
- Norovnyam, B (2010), “Солонгосын ний гэм соёл”, Мөнхий н үсэг хэвлэлий н газар.
- Sainbilegt, D.(2003) “한 . 몽 언어 문화적 특성 비교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 12 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51~384.
- Sainbilegt, D.(2006)“몽골의 한국어교육 및 한몽 문화의 이해”, 한글창제 560 돌 기념 국제심포지엄 발표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주최, 27~32 쪽.
- Sainbilegt, D.(2009) “몽골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황 및 발전 방향”,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12, 7-28 쪽,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 Sainbilegt, D., Serdaram, D (2010), “Хүн амын гадаад шилжих хөдөлгөөний онцлог, цаашдын чиг хандлага (몽골인들의 해외 이동의 특징 및 향후 전망)”,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20 жилий н ой д зориулсан ОУЭШХ-ын илтгэлий н эмхэтгэл, MAGIKO.
- Sainbilegt, D (2010), “БНСУ-ын улс төрий н тогтолцоо”, Мөнхий н үсэг хэвлэлий н газар.
- Sainbilegt, D (2010),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орчуулгын асуудалд”, МУИС ба БНСУ-ын Орчуулгын хүрээлэнтэй хамтарч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Олон улсын Утга зохиолын лекц семин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 Sainbilegt, D (2011), “번역교육 및 번역가의 현실 (Орчуулгын сургалт ба орчуулагчд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아시아 번역가 커뮤니티 (Азий н орчуулагчдын коммунити)”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쪽. 79-88.
- Sainbilegt, D., Tser 두애거, Ts (2015),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 Уламжлал ба орчин үе”,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25 жилий н ой д зориулсан ОУЭШХ, МАЖИКО.
- Sainbilegt, D (2015), “몽골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국제한국어교육 Vol.1 No.2, 162~180 쪽.
- Sainbilegt, D. (2020), “몽골 한국어문화 교육의 쟁점과 전망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 соёлын сургалтын сорилт ба боломж)”, INK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29th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pp. 26-35.
- Sainbilegt, D (2021), 몽골에서의 한국학 교육·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 몽골학의 회고와 전망, 그 30 년 지평을 논하다’ 한국몽골학 학술총서 5, 민속원, 243~262.
- Sainbilegt, D (2022), “한국어교육 연구 및 실행에 관한 고찰: 몽골 사례”, 제 24 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371-379 쪽.
- Sarnai, B (2024),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чиг хандлага (Эрдмий н зэрэг горилсон бүтээлий н жишээн дээр)”, МУИС ССХХ-ны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сэтгүүлий н 2023-2024 оны дугаар.
- Sumiyabaatar, B (1975), “몽골과 한국민족의 기원, 언어적 상관성에 대한 문제”, 몽골 과학아카데미 언어연구소, 올랑바타르.
- Sumiyabaatar, B (1978), “13-14 세기 몽한 교류관련 문서”, 몽골 과학아카데미 어문학연구소, 올랑바타르.
- Sumiyabaatar, B (1992), “중세 몽한 관계사”, 서울,

- Sumiyabaatar, B (1996), “몽골과 고려와의 관계, 한·몽골 교류 천년”, 45-61 쪽.
- Lhagva, B (1995), “13-14 시계 몽한 관계의 특징과 상호 영향의 흔적”, 과학 아카데미 역사연구소 학위논문, 울랑바타르.
- Tserendorj, Ts (2016),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 н судалг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хэтийн төлөв”,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ШУА-ийн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хүрээлэнгий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сэтгүүл, №1, 53-62-р тал.
- Tserendorj, Ts (2017),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дахь XIV-XVIII зууны үеийн Монголтой холбоотой мэдээ баримт (“Чосөн” улсын магад тэмдэглэл”-ийн жишээн дээр)”, МУИС-ийн Ази судлалын тэнхимээс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уй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цаашдын чиг хандлага 2017” сэдэвт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 Tserendorj, Ts (2020),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 шинэ зуунд (Research Achievements of Mongolia-Korea Relations History in the New Century)”, Korean Studies Vol. 3 (7),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 Tserendorj, Ts (2020), “고래 한몽 관계사”, Ulaanbaatar Monkhiin useg 사.
- Tserendorj, Ts (2021), “몽골에서의 한국학 교육 및 연구 동향”, CEFIA Newsletter Vol.20. 2021
- Erdenechimeg, G (1999), 13-14 세기 몽골과 고려 왕실 혼인관계에 대한 연구, 몽골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Erdenechimeg, G (2006), “몽골에서의 한국학 연구”, 인하대학교 BK21 한국학 사업단 제 1 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Erdenechimeg, G (2006),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 1,2 боть”, Адмо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 Erdenechimeg, G (2010), “Солонгосын эдийн засаг”, Мөнхийн үсэг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 간치맥, 임현주, 차희영 (2021), 한국내에서 수행된 몽골의 교육관련 연구 동향 분석, 몽골학 제 66 호, 217~248 쪽.
- 강신(1996), 몽골의 한국학 연구, 한·몽골 교류 천년, 한·몽골교류협회, 311-321 쪽.
- 권성훈(2000),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연구”, 한몽 수교 10 주년 학술회의 자료집, 몽골국립대학교 편.
- 권성훈(2009), “몽골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년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권성훈 (2011), 몽골에서의 한국어 연구 동향과 과제,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문집 Vol.22, 111-136 쪽.
- 김경일 (2003),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4: 129-165.
- 박이문 (1982), “한국학의 방법론”, ‘정신문화연구’, 12: 72-85.
- 이영호(2006),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동아시아 한국학’ 인하대학교 BK21 한국학 사업단 제 1 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이진안(2001), “한국과 몽골의 문화 및 교육 발전 교류 양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현지, 정일준 (2012), “사회학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 한국학의 세계화 전략 모색”, ‘한국학연구’, 43: 461-494.
- 송민선(2015),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 분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상균·하이상대(2003), 한·몽 교류와 협력관계(1990-2002), 과학아카데미, 국제연구원.
- 전성운 (2010), “한국학의 개념과 세계화의 방안”, ‘한국학연구’, 32: 317-337.
- 주채혁(1996), 몽골과 한국의 기원, 한·몽골 교류 천년, 한·몽골교류협회, 13-26 쪽.
- 황패강(1982),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14:89-10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 riss.kr
몽골과학기술재단 자료 data.stf.gov.mn
주몽골한국대사관 자료 <http://mng.mofat.go.kr>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24

-  개회식/폐회식
-  접수/분과회/사무국
-  주식
-  만찬회

